



[해설] 프랑크푸르트 선인 25주년 글로벌 일류 넘어 '초격차' 삼성의 혁신은 계속된다 03



Economy

코스피	2453.76 (0.00)	코스닥	877.16 (0.00)
금리 (미국 3년)	2.20 (0.00)	환율 (원/달러)	2.83 (0.00) (6일)

# P2P대출사기, 피해자 2000명... 금융메기의 배신

(P2P금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63회 현충일' 文 대통령 추념사

### “남북관계 개선엔 DMZ 유해발굴 추진”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내년 4월 복원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 발굴을 마지막 한 분까지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이 시작되면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 4월까지 중국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중징시에 설치했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전현충원에서 정부의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것은 1999년에 이어 두 번째다.

대전현충원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군인 위주로 묘역이 조성된 서울현충원과 달리 의사상자와 독도의용수비대, 소방, 순직 공무원 묘역까지 조성돼 있어 이날 행사는 마지막 한 사람의 희생자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

겨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독립만세를 외친 것도, 전쟁터에 나간 것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선 것도 모두 평범한 우리의 이웃, 보통의 국민들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들이었고, 대전현충원은 바로 그분들을 모신 곳”이라며 추념식을 대전현충원에서 가진 의미를 별도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독도의용수비대, 연평도 포격전사자, 천안함 호국영령, 소방공무원, 경찰관, 순직공무원 등을 차례로 거론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흔들리는 P2P금융

#. 1년 6개월째 P2P(peer to peer·개인 간) 금융 업체에 투자하고 있는 A씨(40). 그는 투자한 1000만원 중 700만원을 상환 받았지만 최근 업체 대표가 잠적하면서 나머지 3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투자금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 A씨는 P2P 금융 투자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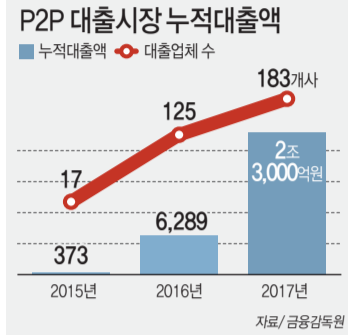
최근 3년간 급성장하며 중(中)금리 시장의 ‘메기’ 역할이 기대됐던 P2P 금융 대출시장이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하고 있다. 잇따른 P2P 금융업체 부도와 대표 잠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어서다.

P2P금융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금융으로, 투자부터 대출까지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 대출받는 사람은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다.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안 금융’으로 부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의 누적대출액은 지난 2015년 말 373억원(17개사)에서 2016년 말 6289억원(125개사), 2017년 말 2조3000억원(183개사)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P2P 대출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P2P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 ◆ P2P 대출시장 ‘빨간불’

6일 P2P 금융권에 따르면 ‘2시펀딩’, ‘헤라펀딩’에 이어 ‘더하이



‘2시펀딩’·‘헤라펀딩’ 이어 ‘오리펀드’ 대표 상환금 먹튀 ‘더하이펀딩’은 연락 두절

### 투자자 모임 법적 절차 준비 靑 게시판에 관련법 요청도

원펀딩’과 계열사 ‘오리펀드’의 대표가 상환예정인 상환금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오리펀드 130억원, 더하이펀딩 110억원대다. 피해자는 최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일산 동부경찰서는 피해고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더하이펀딩과 오리펀드의 제3자 예치금 분리보관업체는 출금과 투자에 관련한 모든 금액의 이동이 금지된 상태다.

오리펀드 문성현 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금 회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지난 5일 통화에서 오리펀드 문 이사는 “아직 대표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일산 동부경찰서에 현황을 설명하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까지 더하이펀딩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네이버 P2P투자자카페 ‘피자모’와 ‘크사모’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피해 회복이 불확실해진 투자자들의 집단행동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대표가 잠적한 P2P금융 업체에 긴급수배권 발동’과 ‘P2P 관련법안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5일 P2P와 관련한 금융사기범을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을 포함하면 참여인원은 3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더하이펀딩과 오리펀드의 사기행각이 의심되는 대목은 ‘담보물이라고 게시한 사진이 무료 사진공유사이트에서 공유되던 사진이라는 점’과 ‘투자를 유치할 때 담보라고 내놓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위조됐다’는 점이다.

### ◆ P2P 규제 강화될 듯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앞서 ‘P2P금융을 규제할 만한 법안’이 마련됐더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날 수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P2P 금융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 본궤도 오르는 북미정상회담 12일 10시 카펠라호텔서 담판

(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지리상 경호·보안 최적화

‘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싱가포르에서 오는 1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구체적 장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비핵화 담판’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미국 백악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과 지도자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장소는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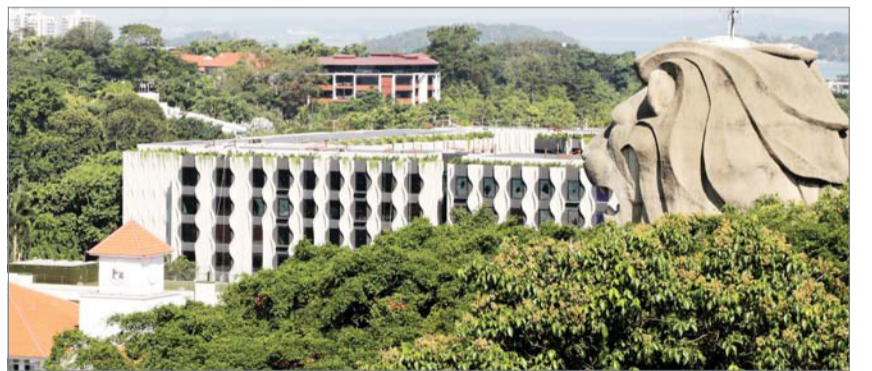
“행사를 주최하는 싱가포르 측의 환대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첫 회담이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개최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윤곽이 모두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판문점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북미 양측은 현충일인 6일에도 막바지 의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최종 낙점된 카펠라 호텔은 북미간 의전 실무회담을 진행한 조 헤이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미국 측 대표단이 그동안 머물러 온



오는 12일 북미정상이 만나는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전경. /연합뉴스

곳이기도 하다.

특히 카펠라 호텔이 위치해 있는 넓이 4.71km<sup>2</sup>의 연륙도인 센토사 섬은 본토와 연결된 700여m 길이의 다리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만 차단하면 외부에서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당초 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관측됐던 샹그릴라 호텔이 아닌 카펠라 호텔로 결정된 것도 이같은 지리적 여건으로 경호와 보안에 최적화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싱가포르 내무부는 관보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 탕린 권역에 이어 센토사 섬 전역 및 센토사 섬과 본토를 잇는 다리와 주변 구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특히 카펠라 호텔과 인접 유원지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등은 ‘특별구역’으로 별도 규정돼 경찰의 검문검색이 이뤄지는 등 한층 삼엄한 보안이 적용된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빚 부담 40% ↓

(5년→3년)

당국, 채무자 상환부담 축소  
금융권 신용평가 강화 기대

# 5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며칠 전 채권자 집회에 다녀온 A씨(50). 150만원의 월급 가운데 약 40만원(변제금)을 5년 동안 낼 것으로 예상했던 A씨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단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단축되면서 채무자들의 빚 부담이 40%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개인회생 인가 후 3년간의 변제기간을 거치면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변제 기간 축소는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4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채무자의 신용회복 기간이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어려웠던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에게 상환 부담을 감소, 채권자인 금융권에 신용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금이 줄어들면서 채권 회수율 하락을 경험한 금융권이 신용평가를 강화시켜(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장래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금을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갱생형 제도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

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에 한한다. 다만 개인회생 기간 동안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가 채무자의 기존 연체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변제완료나 면책기간 전까지 공공정보를 관리한다. 따라서 통장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신용거래는 어려울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신청-면담-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결정 순으로, 인가 결정이후 개개인의 가용소득과 채무상태에 따라 변제기간이 결정되며, 일정 변제기간을 거쳐 면책 받는다.

현재까지 개인회생을 통해 지원된 채무자는 약 350만명이며, 2003년 372만명이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올해 95만명(3월 말 기준)으로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개인회생절차(2018.06.03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 출신지 차별금지·필기시험 도입 등 '은행 채용 모범규준' 공개

# 지방銀·제2금융권 "현실 반영 안돼... 일괄 적용 어렵다"

지방 특성상 해당지역 인재 선호  
자체시험 도입한 제2금융도 난색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가 내놓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놓고 말이 무성하다.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탄생한 모범규준안이 각 은행에 맞는 인재 채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특성상 지방 인재 채용이 필수지만 모범규준에 따른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자체시험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던 일부 제2금융권은 모범규준 적용에 난색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



지난해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연합뉴스

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오는 11일까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한다.

모범규준에는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도입 권고, 서류전형 외부기관 위탁, 블라인드 면접,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정은 연합회 자율 규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사인 산업, 농업,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19개 은행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한다.

금융업계에선 이번 모범규준 마련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압박이어서 민간기업

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특히 필기시험이 공정성과 객관성은 높일 수 있지만 정량 평가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율성에 금이 간다"며 "은행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모범 규준 적용은 합리적인 인력채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이 마련한 모범규준은 권고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이 연일 모범규준을 언급하고 있어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에 6개 주요 지방은행 인사 실무진들도 참여했지만 현재 은행권은 개별적인 기업이 처한 상황과 여건보다는 공동으로 규준을 적용하는데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은행은 지역인재 편성을 하

더라도 모범규준을 도입할 경우 회사 사정에 맞는 직원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영업 특성상 특정 지역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 출신 인재를 선호했지만 모범규준을 따를 경우 인력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은행 기반은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정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6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 원장은 "금융투자나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업권에도 채용 절차 모범규준이 확산돼 채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제1금융권에 가해졌던 '채용절차 기준 마련' 압박이 고스란히 제2금융권에도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삼성, 현대차, 한화 등 대기업 계열의 보험·카드사는 그룹사 공통의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일괄적인 모범규준을 수용하는 것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일자리에서 밀려난 10대... 취업자 수 29% 감소

(15~19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19세 취업자 작년비 7.6만명 ↓  
최저임금·10대 인구 감소 등 영향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대(15~19세) 청소년들이 일자리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을 한 10대 10명 중 8명은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5~19세 취업자는 18만9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7만6000명(28.6%) 감소했다.

15~19세 취업자 감소율은 관련 통계가 제공된 1982년 7월 이후 올해 4월이 가장 컸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작년 9월에는 4.1% 증가했으나 같은 해 10월 6.5% 감소로 전환한 이후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감소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에 머물렀으나 4월에 28.6%로 급격히 높아졌다.

15~19세 취업자 다수는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취업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연보를 보면 지난해 15~19세 취업자 중 76.7%가 임시·일용 근로자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한 업종은 도소매·음식숙박업(56.7%)이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 업종에 많이 종사하며 대다수가 임시·일용직인 점을 고려하면 15~19세 취업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정액 급여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29세 이하였다.

29세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 급여는 9678원이었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관행 등을 고려하면 15~19세 근로자가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10대 취업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 관해 "최저임금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큰 흐름으로 보면 1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한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점진적이므로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발생한 10대 후반 취업자 감소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4월 15~19세 인구 감소율은 5.7%로 같은 연령대의 취업자 감소율(28.6%)보다 훨씬 낮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해 노동시장



지난해 7월 서울 은행구청에서 열린 '2017 은행 특성화고·청년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참가업체 정보를 사진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의 경직성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며 "청소년 근로자를 당장 해고하지는 않더라도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1면 '흔들리는 P2P금융'서 계속

##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추가피해 방지 법제화 시급

금융당국은 지난해 'P2P대출 가이드라인'만 내놓은 상태다.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모든 현황 공시', '투자금과 P2P업체 자본분리' 등이 담겨있지만 가이드라인은 행정 지도에 불과해 별다른 강제·구속력이 없다. P2P업체가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P2P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대출 사기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를 빨리 시행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P2P 대출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차입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나유리 기자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라” 프랑크푸르트 선언 25주년

# 글로벌 일류넘어 ‘초격차’... 삼성의 혁신은 계속된다



작년부터 ‘비상경영 체제’ 돌입에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하게 보내

이재용, 해외출장만 3차례 떠나 해외서 ‘이건희식’ 혁신경영 시도



2011년 4월 삼성 서초사옥에 출근하고 있는 이인희 삼성 회장(왼쪽)과 이재용 당시 삼성 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이 7일로 이인희 삼성전자 회장의 ‘프랑크푸르트선언’ 25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조용한 변혁’에 들어간다.

“지금처럼 잘해야 1.5류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온 이인희 회장의 ‘일갈’ 이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불리는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은 이후 경영의 중심을 양(量)이 아닌 질(質)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삼성’의 밑거름이 됐다. 80년 삼성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기억되는 이 선언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그렇지만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계열사는 7일 별다른 기념행사를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계열사의 한 임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하게 보내는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검찰수사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삼성은 2014년 이 회장의 입원 전까지만 해도 매년 이날 신경영 기념식을 열었다. 이후 2015년에는 사내 방송을 통해 특집 다큐멘터리를 선보였고, 2016년에는 사내 인트라넷에 이 회장의 어록을 띄웠다.

그러나 지난해 이 회장의 와병에 이차

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수감까지 겪으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도 해체되었다. 이 때문에 조촐한 행사도 열리지 않았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올해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에서는 삼성이 주력 계열사의 전반적 경영실적 호조와 글로벌 입지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만 보면 창업 이후 최악의 ‘암흑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회장의 오랜 와병과 이 부회장의 재판이란 ‘기본 악재’에다 노조 와해 의혹과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이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재벌개혁 압박,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 이슈와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룹 안팎에서는 대규모 기념행사와 전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특별격려금 지급 등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던 20주년(2013년)만큼은 아니지만 역사적 선언 ‘사반세기’를 맞아 뜻을 되새기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축 행사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논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해 들어 수사당국의 압수수색만 10여 차례 받았다. 삼성은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맞설 수도 없고 맞서지도 않을 것”이라는 계열사 고위 임원의 말에서 내부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다.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삼성언론재단의 언론인 지원 핵심사업 중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신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선봉장’으로 나서 해외에서 ‘이건희식’의 공격적

혁신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초 석방 이후 해외 출장만 3차례나 떠났다. 국내 악재에는 위축된 모습이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의 통상 압박 등 해외 도전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영국, 캐나다, 러시아에 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잇따라 개소한 데 이어 대만과 카자흐스탄에 각각 20번째와 21번째 ‘삼성 뉴스룸’을 개설했고, 해외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 반도체 신기술 로드맵을 선보였다. 지난달 말 최고 혁신책임자(CIO) 직책을 신설하고 산하 혁신조직인 삼성넥스트의 데이비드 은 사장을 임명한 것과 맞물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최근 행보는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준다”면서 “이재용식 신경영은 ‘글로벌 초일류’를 넘어 ‘글로벌 초격차’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서 실적과 성과가 우선이겠지만 비단 여론 등에 대한 자성을 토대로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면서 거듭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공매도 논란 재점화... 靑 국민청원 봇물

일부 주식 ‘무차입 공매도’ 정황 금감원, 골드만삭스 공매도 조사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또다시 ‘공매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삼성증권 사태에 이어 다시 한 번 공매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법하지 않은 공매도 관련 처벌 강화 등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선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30일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을 결제하지 못했다. 미결제 주식은 총 138만 7968주로 약 60억원 규모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종목 중 19개 종목을 지난 1일에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4일 차입해서 결제를 마쳤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흔히 ‘무차입공매도’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무차입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관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동안 검사를 진행해 골드만삭스가 제대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진행했는지와 공매도 목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업틱블’을 준수했는지를 중점

### 무차입 공매도 금융기관을 제재/검찰조사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11,934명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시작	2018-06-04	청원마감	2018-07-04	청원인	naver-***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조사한다. 업틱블은 공매도 거래 시 시장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만약 시장가격 이하로 대량매도를 낸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주가하락을 유도한 의도적인 무차입공매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무차입공매도’ 논란을 촉발시킨 삼성증권에 대해선 금감원이 예상보다 높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일정기간 영업정지, 일부 임원 해임권고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 논의는 오는 21일께 시작하고, 최종 징계 조치는 제재심의위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매도 개선안을 통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공매도 논란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

매도 관련 청원만 1600건에 달한다. 불법적인 공매도를 검출할 수 없는 시스템 하에서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 청원자는 “공매도 순기능이 고평가된 주식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라고 하지만 소액투자자의 접근 제한이 심해 외국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진단하고서 “이를 계기로 공매도의 전면 금지나 폐지를 하고 전 증권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보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공매도는 개인에게 여전히 높은 허들일 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의 손해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다”며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햄버거 오찬대담’ 성사에 주목

>> 1면 ‘북미정상회담 본궤도’서 계속

트럼프, 상그릴라 호텔에서 머물 듯 마리나베이 기념촬영 여부도 관심

카펠라 호텔이 정상회담 장소로 확정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상그릴라 호텔에서 머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의 숙소로는 마리나 베이 인근 풀러턴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상그릴라 호텔과 가까운 세인트리지스 호텔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지 외교가에선 회담의 세부 일정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때 선보였던 ‘도보다리’ 산책과 같은 색다른 장면이 연출될 것 인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선 카펠라 호텔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해변을 두 정상이 함께 걸으며 허

심탄화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현지 언론에서 언급한 마리나 베이 기념촬영 성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에서 두 정상의 기념촬영 계획이 마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공언해온 대로 ‘햄버거 오찬대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16년 6월 애플랜드 유세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해서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례에 따라 회담은 오전에는 수행원을 배제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이, 오후에는 확대회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이 사이 두 정상이 오찬을 함께 나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승호 기자 bada@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 차량이 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을 통과해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이 키운 사내벤처 어느새 34곳... 일자리창출 '한 몫'

##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C랩'

우수 과제 3개 스타트업 창업 지원  
아그와트·캐치플로우·포메이커스  
2015년 도입 이래 매년 꾸준히 발굴

삼성전자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의 3개 우수 과제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8월 처음으로 C랩 스핀오프 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꾸준히 우수한 C랩팀을 발굴해 스타트업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된 스타트업은 총 34개다.

이번에 스타트업으로 출범하는 3개 팀 가운데 아그와트는 생활가전사업부 개발자들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가전 기술을 활용해 가정에서 간



삼성전자 C랩을 통해 창업에 나서는 3개 과제 참여 임직원들이 한데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삼성전자

편하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플랜트박스'를 개발했다. 플랜트박스는 소형 냉장고와 유사한 형태로, 기르고 싶은 채소의 씨앗 캡슐을 재배기에 넣으면 씨앗의 종

류에 따라 빛, 온도, 습도, 공기질 등 최적의 환경이 자동으로 설정돼 쉽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캐치플로우는 초소형 포터블 지향성 스피커 'S레이'를 개발했으며 올 1월 CES 2018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캐치플로우는 기존 지향성 스피커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대비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포메이커스는 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자 인터뷰가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한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리서치 플랫폼 '앱비'를 선보였다. 설문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참여자 선정이 중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앱비는 앱 사용패턴을 분석해 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를 추천해 보다 신뢰도 높은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C랩 출신 스타트업들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한 베이비 케어 솔루션 업체인 ㈜모잇은 독립한지 1년 만에 제품을 출시

한다. 6월 11일부터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아기의 대·소변 여부를 알려주는 기저귀 센서를 판매하며, 곧 전국 유명 백화점으로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단한 허밍으로 작곡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클랩 컴퍼니는 6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가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스카이텍'에 선정돼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글로벌 스타트업들과 경쟁하고, 곧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투자 유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를 만드는 ㈜링크플로우는 보안용 장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일본의 한 전문 업체로부터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 ㈜링크플로우는 창업한지 1년 5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20배 이상 상승하는 등 가장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구세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전자 모델이 선명한 화질과 투명한 디자인이 장점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실물과 함께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고급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 LG전자, 사이니지 혁신제품 대거 선보

### 상업용 DP전시회 '인포콤 2018' 참가

LG전자가 6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 2018'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올레드 사이니지부터 초박형 베젤의 비디오월, 투명 LED 필름, 독특한 비율의 울트라 스트레치까지 앞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군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한다.

LG전자는 올해 주요 전시회를 통해 독보적인 올레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인 '오픈 프레임 올레드 사이니지'는 곡면 디자인을 보다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 물결치는 듯한 조형미를 살릴 수 있다.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는 선명한 화질과 투명한 디자인이 장점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실물과 함께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고급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질감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장을 자연스러운 하나의 큰 화면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베젤 두께 0.6mm의 비디오월, 1.5mm 픽셀피치로 실내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LED 사이니지, 유리 등에 붙여 손쉽게 디지털 사이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컬러 투명 LED 필름, 58대 9와 32대 9라는 고유의 화면비로 세로나 가로로 길게 설치할 수 있는 울트라 스트레치 등 차별화된 제품들을 전시한다.

/구세운 기자

## KT, 필리핀 정부에 '스마트 보라카이' 제안

### ICT 발전 위한 협력방안 논의

KT가 세계적인 관광지 보라카이를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한 섬으로 탈바꿈시키는 '스마트 보라카이(Smart Boracay)' 프로젝트를 필리핀 정부에 제안했다.

KT는 5일 서울 중구 KT광화문빌딩 이스트(East)에서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필리핀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필리핀 ICT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황창규 회장은 필리핀 정부 장관·차관들에게 스마트에너지, 보안 등 ICT를 기반으로 KT가 보유한 혁신 솔루션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6개월간 환경 복원에 들어간 보라카이 섬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계해 보라카이에 ICT 솔루션을 적용하는 '스마트 보라카이' 구축을 제안했다.

KT는 보라카이에 한국의 앞선 ICT 혁신기술이 활용되기를 희망했다. 공공 와이파이와 지능형 CCTV를 항구 등에 적용하면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보다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양광 에너지 활용하는 방안과 KT의 스마트에너지 솔루션 KT-MEG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약 18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며 경제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KT는 보라카이 복원 프로젝트 참여를 시작으로 ICT산업 발전의 주요 파트너가 되기 위해 정부 및 민간기업의 주요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민 기자

## 애플 'iOS12' 안정화 초점... 혁신 빠지지 않았다

<운영체제>

### 세계개발자콘퍼런스 2018

성능 개선한 새로운 운영체제 공개  
미모지·AR키트·시리숏컷 등 혁신  
SE2 등 하드웨어 제품 발표는 없어

애플이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개발자콘퍼런스(WWDC) 2018에서 새 모바일 운영체제 'iOS12'를 발표했다. 애플이 그동안 지적되었던 운영체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영역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새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12'는 성능면에서 이전 버전보다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애플은 앱 실행속도에서 40%, 키보드 구동속도는 50%, 카메라 작동속도는 70% 빨라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많은 기능을 추가하느라 속도저하와 잦은 버그를 경험한 사용자들이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여 기본성능 개선과 안정화로 화답했다.

애플의 장기인 혁신성을 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사용자 표정을 읽어 미리 만든 이모티콘에 실시간 적용하던 '애니모지' 기능을 더욱 진화시켰다. 얼굴을 직접 이모티콘으로 만드는 '미모지' 기능은 사용자 표정은 물론, 말할 때 혀 움직임을 인식해서 반영한다. 삼성이 갤럭시S9에 탑재한 'AR 이모지'보다 진보된 소통 기능이다.

더욱 강화된 증강현실(AR) 기능은 카메라로 비춘 사물의 크기와 거리도 측정



크레이그 페더리기가 애플 수석부사장이 WWDC 2018 행사장에서 iOS12를 소개하고 있다.

/에플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해준다. 이날 소개된 iOS12용 증강현실 파일 포맷 'USDZ'는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고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 카메라에 보이는 영상 속 특정 지점간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 포맷은 웹에서도 실행할 수 있으며 어도비, 오토데스크, 스케치랩 등을 지원한다. AR 앱을 제작할 수 있는 'AR키트 2.0'에서는 이용자 여러 명이 같은 AR 경험을 즐길 수 있어 앞으로 AR게임에서 다중 플레이가 가능해졌다.

인공지능(AI) 비서 '시리'도 더욱 좋아졌다. '시리 숏컷' 기능을 통해 음성 명령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앱을 조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스크린 타임'은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 내에서 어떤 기능을 얼마동안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보호자가 자녀의 모바일 사용현황을 확인하며

사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iOS12는 체감성능을 올려서 기본적인 사용자 만족도를 올리고 사용자 소통기능을 진화시켜 혁신성을 드러냈다. 증강현실 기능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려는 시도를 했다. 여기에 사회문제인 휴대폰 중독을 억제하기 위한 '앱 제한' 기능을 넣어 사회적 역할도 일부 수행했다. 모바일 업계의 '트렌드 리더'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려는 애플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발표 전에 기대되었던 하드웨어 제품 발표는 없었다. 새로운 아이폰 SE2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혹은 새로운 맥북이 나올 것이라는 각종 관측은 빛나 갔다. 행사에서는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12 ▲워치OS5 ▲tvOS ▲맥OS 모바일 등이 소개되었다. 행사 주체인 개발자를 위한 개발용 소프트웨어 위주로 진행되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환경부, LG하우시스 전 직영매장 '녹색매장' 지정

###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 기여 매장

LG하우시스가 운영하는 전국의 모든 직영 전시매장이 환경부의 '녹색매장'에 지정됐다. 녹색매장이란 방문 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 설치와 매장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에 기여하는 매장을 말한다. 업체들이 신청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평가해 지정하고 있다.

6일 LG하우시스에 따르면 이번에 '녹

색매장'으로 지정된 곳은 지인스퀘어를 비롯해 전국의 16개 지인(Z:IN) 직영 시장 등 총 17곳이다. 그동안 주로 백화점, 대형마트, 유기농 전문판매점 등이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가운데 인테리어 관련 전시매장으론 LG하우시스가 처음이다.

LG하우시스는 지인스퀘어와 전국 직영 전시장에서 고단열 창호 및 친환경바닥재, 벽지 등 100여개의 환경마크 획득 제품과 14개의 저탄소 인증 제품을 선보이며 친환경 인테리어자재 활성화에 기

여해 왔다.

또 전시장에 녹색제품 인테리어 쇼룸을 별도로 구성해 소비자에게 녹색제품을 적극 알리고 있다. 매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까지도 녹색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이번에 녹색매장에 지정된 전국 17개 매장을 시작으로 향후 개설 예정인 지인 직영 전시장 부천점과 리뉴얼 오픈 예정인 부산점, 인천점도 녹색매장에 부합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캠핑카·전기차에 미래차까지’ 부산에 다 온다

## 부산국제모터쇼 D-1

국내외 11개 완성차브랜드 참가  
신차 25종·친환경차 40대 공개  
관람객 위한 체험·볼거리 마련

국내 최대 자동차 축제인 ‘부산국제모터쇼’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부산모터쇼는 8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11개 완성차 브랜드에서 25종에 달하는 신차를 공개한다. 2016년 20여대에 불과했던 친환경 차량은 올해 그 두 배인 40여대 가량 출품된다.

### ◆다양한 라인업 공개

올해 부산모터쇼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현대·기아차, 한국지엠(GM), 르노삼성자동차가 전시 부스를 마련한다. 우선 현대차는 ‘현대차와 함께하는 미래 모빌리티 라이프’라는 콘셉트로 2700㎡ 규모의 전시장을 꾸린다. 이곳에서 수소전기차 넥쏘와 코나EV, 아이오닉 등 전기차 등 친환경 모델은 물론 고성능 라인업 벨로스터 N과 i20 WRC 등 다양한 차량을 전시한다. 투싼과 i4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부산모터쇼에서 공개된다. 또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

시스는 아시아 프리미어 어센시아 콘셉트카와 의전용 차량인 G90 스포셜 에디션을 선보인다.

기아차는 순수전기차 모델인 니로 EV를 최초 공개하고, K 시리즈도 총출동시킬 계획이다.

최근 내수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이번 모터쇼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에 돌입한다.

한국GM은 하반기 기대작인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쿼닉스’를 이번 모터쇼를 통해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최근 내수시장에서 월 판매 1만대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 신형 싼타페와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최근 판매를 시작한 전략 소형차 르노 클리오를 부산 영남지역 고객에게 소개하며 신차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르노삼성은 부산지역 대표 자동차 회사로서 지역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2년 만에 국내 시장에 복귀한 아우디가 공격적이다. 아우디는 대형세단 A8과 Q2, Q5 등 SUV, 스포츠카 모델인 TT RS 등 총 4종의 신차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소형 SUV인 Q2는 한국에 한 번도 출시된 적이 없는 모델로, 국내에 상륙한다면

가뜩이나 치열한 소형 SUV 시장의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BMW는 국내 최초로 6가지 모델을 공개하고 바이크 포함 총 20가지 모델을 전시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오픈탑 i8 로드스터와 향후 BMW 그룹 디자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콘셉트 Z4, X 패밀리 중 완전히 새롭게 선보이는 뉴 X2, 세련된 디자인의 뉴 X4, 초고성능 스포츠카 M4 CS 등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 회사 전기차 브랜드인 ‘EQ’를 기반으로 기술 혁신을 추구해 온 새로운 모빌리티 비전을 소개한다. 벤츠는 이번 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차량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

부산국제모터쇼에는 완성차 전시 외에도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국내 최고가 벤츠 스프린터 캠핑카 및 최신 캠핑카와 카라반이 총 출동하는 ‘캠핑카 쇼’가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벡스코 제2 전시장(신관) 3층에서 열린다. 최근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 캠핑카인 에이스캠퍼와 제일모빌, 다운티엔티, 에어밴, 스타모빌을 필두

로 은하모빌, 화이트하우스코리아, 자동차시대캠핑카, 듀오탑, 위크캠프가 참가한다.

또 최근 1~2인용 이동 수단이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2018 퍼스널 모빌리티 쇼’가 14~17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부산 벡스코 제2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2018 부산 국제 모터쇼’ 기간 중 동시 개최되며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및 액세서리, 부품 등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분야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퍼스널 모빌리티 전문 브랜드 샵이 브이샵을 비롯해 전기자전거 업체인 리콘하이테크, 웰리스포츠 등 30여개 국내외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업체가 함께한다.

같은 기간 자동차생활관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용품이나 서비스, 미래기술 등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전기자동차를 직접 시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벡스코 RC카 레이싱 챔피언십’도 같은 기간 개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KT ‘데이터온’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일주일만에 16만명 돌파

KT가 3년 만에 전면 개편한 새 요금제 ‘데이터온(ON)’이 출시 일주일 만에 16만명을 돌파하며 통신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KT는 지난달 30일 출시한 ‘데이터온’ 요금제 가입자가 출시 3일 만에 10만명을 달성한 데 이어 1주일 만인 6월 5일 기준으로 16만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출시한 ‘데이터 선택 요금제’ 가입자 10만 달성에 4일 걸렸던 것에 비해 하루 빠른 속도다. “하루 2만명 이상이 데이터온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특히 신규판매 가입자 중 데이터온 요금제 선택 비중은 50%를 넘는다. 가장 호응이 높은 세대는 2030세대로 데이터온 요금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온 총 가입자 중 요금 변경으로 가입한 비중은 80%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데이터 선택 요금제’로 변경한 가입자와 비교할 때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요금제 가입 비중을 살펴보면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과격적으로 확대한 ‘데이터온 비디오’(월 6만9000원, 100GB+5Mbps 속도제어) 요금제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20~30대 비중이 75% 이상으로 기존 요금제에 비해 제공 데이터를 매월 100GB로 대폭 늘리고 멤버십 VIP 혜택까지 제공한 것을 인기비결로 꼽았다.

/김나인 기자 silkni@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 ‘U+우리집AI’ 기능 업데이트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U+우리집AI’ 음성명령을 내 맘대로 더 똑똑하게 업데이트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스마트홈 서비스인 ‘U+우리집AI’ 사물인터넷(IoT)을 원하는 이름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쉽게 부르는 IoT ▲내 명령어로 동시에 켜고 끄는 IoT ▲음성제어 가능한 IoT기기 확대 등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 ‘U+우리집AI’의 세 가지 IoT 기능 업데이트를 5일부터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IoT 기기 이름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음성명령 시 “클로바스 위치 켜줘”라는 일반 명령뿐 아니라 IoT 기기에 이름을 붙여 “클로바 ‘작은 불’ 켜줘”와 같은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장소도 지정하면 “클로바 ‘아이 방’ 불 켜줘”와 같은 음성명령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내가 만든 명령어로 집안 내 여러 IoT기기들을 동시에 켜고 끄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클로바 나 잘게”라고 말하면 고객이 설정한 TV(플러그)와 조명(스위치)이 꺼지며 가습기가 작동한다. 여행 시 “클로바, 여행모드”라고 하면 가스밸브, 조명, 가습기, 에어컨 등이 자동으로 잠기고 꺼진다.

이처럼 고객이 정한 이름과 명령어로 IoT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U+홈IoT 앱인 ‘IoT@home(아이오티애크)’의 ‘우리집기기’와 ‘동시실행’ 메뉴에서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U+우리집AI 스피커와 연동되는 기존 10종의 IoT기기를 멀티탭, 열림감지센서, 선풍기 등을 추가해 총 20종의 IoT기기로 늘렸다. /김나인 기자

## 제주항공, 수속절차 간소화 국적사 최초 ‘자동탑승수속’

제주항공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탑승수속 절차를 개선하며 ‘무인수속서비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탑승수속 카운터 혼잡도를 낮추고 수속절차를 간소화 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적항공사가 가운데 처음으로 항공권을 예매하면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에 모바일로 탑승권을 자동발급해주는 ‘자동탑승수속’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동탑승수속’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승객에게만 적용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모바일서비스 개선사업의 하나로 약 7개월 간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자동탑승수속’을 하면 최초 좌석은 자동배정되지만, 모바일 탑승권을 받은 후 좌석변경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좌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탑승 24시간 전에 모바일로 전송되는 탑승권 발급 안내에 따라 원할 경우 자신이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제주항공은 ‘자동탑승수속’ 서비스로 모바일 수속 편의를 높인데 이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탑승수속’이 가능한 노선도 확대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미세먼지 뒤덮인 車, ‘세차’해야 ‘새 차’로

### ‘볼스원 프라자’ 세차법 알아보니

차량 열 식힌 후 세차 시작해야  
카샴푸로 거품내 1분간 때 불리고  
상부서 하부로 닦아야 흠집 방지  
잡티 제거 ‘액체형 클렌저’ 추천

봄철 세차는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차량 외부 오염을 방지할 경우 차량 외관에 흠집이 나거나, 유해성 오염 물질로 인해 심할 경우 차체가 부식이 될 우려도 있다. 또 차량 외관에 쌓인 먼지는 차량 실내나 엔진으로도 유입될 수 있어 운전자는 물론, 차량 성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신차를 구매하면 최소 5년 이상 이용한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세차를 통해 차량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자동차 용품 전문기업 볼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볼스원 프라자’를 찾아 세차 용품 사용법과 세차 방법을 알아봤다.

### ◆기계식 자동세차시 ‘잔기스’ 주의

기계식 자동세차는 간편하고 빨리 끝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웰(잔기스) 마



차량에 카 샴푸를 뿌린 뒤 1분가량 때를 불린 뒤 위에서 아래로 차량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다.

크’가 쉽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오히려 차 광택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잔기스를 없애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 광택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볼스원 프라자 최학민 주임은 “기계 세차의 경우 기계의 과중한 힘과 불규칙한 타월 방향으로 자동차 도장면에 거미줄 모양의 흠집을 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세차시 상부에서 하부로

세차를 시작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주행중 발생한 열을 식혀야 한다. 세차장으로 이동 중 엔진과 휠, 디스크 브레이크에 열이 발생한다. 만약 갑자기 찬물이 닿을 경우 휨이나 변색이 될 수 있다. 열이 식으면 휠 세정제를

골고루 뿌리고 1~2분가량 찌든 때를 불려준다. 앞범퍼 등에 찌든때나 벌레 등이 붙어있는 곳이 있다면 클리너를 뿌려 주는 게 좋다.

이어 고압수를 이용해 차량을 세척한다. 이때 잘못된 방법으로 세차를 진행할 경우 차체에 흠집을 내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차시 차량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 손세차장에서는 거품 솔과 전용 폼, 카샴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의 잔기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카샴푸를 추천한다. 카샴푸를 뿌린 뒤 거품은 1분 동안 그대로 두어야 때를 벗기는 데 효과적이다.

### ◆잡티 제거 새차처럼

세차 후에도 차량 표면에 찌든때가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용도클리너를 사용해 지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볼스원 ‘크리스탈 클렌저’를 추천한다. 액체형으로 깨끗한 천이나 스폰지에 소량을 묻혀 가볍게 문질러 주면 도장면의 얼룩과 오래된 왁스 코팅 막을 제거할 수 있다. 물론 고체형 왁스를 사용하면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고른 빛을 내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양성운 기자



# 카뱅·케이뱅크 1분기 적자 축소... 인터넷전문銀 실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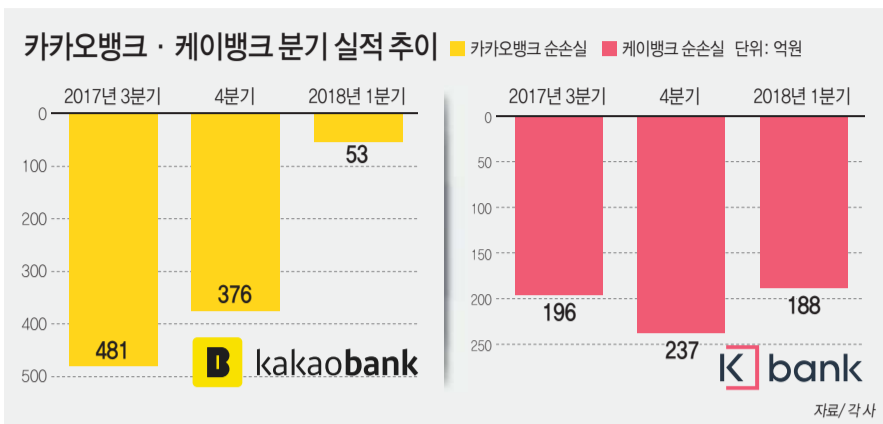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손익분기점 근접  
케이뱅크 지난해 4분기 比 개선  
연체율 0.03%·0.17% 수준 유지

인터넷전문은행의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적자 규모가 53억원으로 손익분기점(BEP)에 근접했다.

6일 카카오뱅크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순손실은 53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 3분기 481억원, 4분기 376억원 순손실에서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빠르게 늘어난 대출로 이자이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카카오뱅크의 이자이익은 지난해 3분기 113억원에서 4분기 376억원, 올해 1분기 544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총당금 환입이라는 일회성 요인도 실적개선에 힘을 보탤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실적은 공격적인 대출 성장과 순이자마진(NIM)에 제고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일부 총당금 환입으로 개선됐다"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해도 1분기 순손실은

10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자산 총액은 7조9000억원, 자본총계는 6624억원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1분기 18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판매관리비 증가로 적자규모가 커졌던 지난해 4분기 237억원 순손실에서는 개선됐지만 3분기 196억원

순손실 수준에 머물렀다.

자본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대출 늘리기에 나서지 못한 것이 실적에 그대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적극적인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지난 4월 1조3000억원 규모까지 늘렸다. 반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1차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3500억원 수준으로 늘리는데 그쳤고, 현재 15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가 진행 중이다. 2차 유증까지 끝내도 자본금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케이뱅크의 자산 총액은 1조5000억원, 자본총계는 2148억원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연내 분기 기준 BE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대출채권 등 이자부자산이 7조7000억원을 달성한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추가적인 성장에 예상된

다"며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중 분기 기준 BEP 달성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용 등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데다 일회성 이익도 있었다"며 "향후 전산·IT 등 각종 비용과 공격적인 대출 늘리기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분기 흑자달성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순이자마진(NIM)은 카카오뱅크 2.12%, 케이뱅크 2.11% 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과 중금리대출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시중 은행 대비 NIM이 높았다.

연체율은 카카오뱅크 0.03%, 케이뱅크 0.17%로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안상미 기자 smah1@metroseoul.co.kr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가운데)이 다문화 학생들과 포즈를 취했다. /우리은행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430명에 장학금 6억 지원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2018년 다문화 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다문화 학생 430명에게 총 6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학업 장학분야 410명과 특기 장학분야 20명 등 총 430명이다. 부모 및 본인 출생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총 30개국에 달한다. 장학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년과 장학분야에 따라 각각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되며, 학비는 물론 교재구입 및 자기개발비 등 학업증진 비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특기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은 육상, 농구, 사격, 미술, 음악, 어학 분야에 재능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이다. 특별한 재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은 물론, 자격증 취득 및

대회 출전비용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전달된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뚜렷한 목표를 가진 우수 학생들로서 장차 우리나라를 빛낼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은행과 계열사에서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2012년부터 3340명의 다문화 장학생을 선발해 총 26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다문화 학생의 꿈을 응원해왔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및 복지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안상미 기자

## NH농협은행

### 농식품기업여신 20조 넘어

NH농협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농식품기업여신 잔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기업여신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식품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농업인 포함)에게 지원하는 여신이다.

농협은행은 2012년 3월 범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출범했고, 이후 6년 동안 농식품기업여신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식품기업여신 잔액은 사업구조개편 전 대



비 11조7000억원, 전년 말 대비 7364억원 늘어 5월 말로 20조원을 달성하게 됐다.

한기열 농협은행 부행장은 "스타트업(start-up) 기업 및 농업인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농업·농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하나금융, '보육 인프라' 전방위 민간협력

90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등  
비수도권 중심 보육환경 제공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일 오후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2020년까지 9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기부채납을 통해 비수도권, 신혼부부 밀집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의 협력, 대상지역 선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성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재정형편 때문에 주저하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부위원장 역시 "부모들은 일하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첫번째)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두번째),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면서도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원한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회장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민간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며 "이번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기업

과 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되어 범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월 세종특별자치시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명동 직장어린이집 착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4월에 밝힌 '2020년까지 1500억원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90개, 직장어린이집 10개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kmh@

### 〈국내은행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 현황〉

(단위: %)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비율
16.0 이상	경남(16.47/13.07/11.80) 광주(16.20/12.74/12.13)	씨티(18.94/18.31/18.31) 신한(16.30/13.58/13.28) 하나(16.27/14.04/13.93)	
15.0 이상	부산(15.70/13.16/12.41) 농협(15.25/12.53/12.26) 우리(15.09/12.98/11.07)	국민(15.80/14.89/14.89) SC(15.37/15.37/15.37) 산업(15.34/13.31/13.31)	
14.0 이상	제주(14.56/10.82/9.44)	기업(14.13/11.81/10.11) 대구(14.74/12.94/11.60)	
13.0 이상	전북(13.38/10.20/10.15)	수협(13.62/11.27/10.77) 수출입(13.26/11.56/11.56)	케이(13.48/12.97/-)
13.0 미만		카카오(10.96/10.63/-)	
	9.5 미만	9.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보통주자본비율(케이, 카카오는 기본자본비율)

## 은행권 총자본비율 '15.34%'로 개선

국내 은행들의 지난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34%로 개선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34%, 13.30%, 12.7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10%포인트, 0.18%포인트, 0.21%포인트 상승했다. 1분기 은행들 이익이 대폭 늘면서 총자본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증가율을 웃돌았다.

은행별로는 씨티(18.94%), 경남(16.47%)의 총자본비율이 높았다. 카카오뱅크(10.96%), 수출입(13.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해 총자본비율이 기존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주주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34%로 지난해 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총자본이 늘었지만 위험가중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자기자본비율은 13.00%, 보통주자본비율은 12.47%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07%포인트, 0.08%포인트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 SK텔레콤 고객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안심T로밍

전화를 걸 때도 받을 때도  
**매일 음성통화 3분 무료**

매일 3분 무료에 30분까지 최대 1만원만 부과

데이터가 필요할 땐 부담 없도록  
**데이터 일정한 5천원**

일 8.8MB 사용 시까지 (이후 24시간 동안 과금 없이 속도제한 이용)

해외 로밍은 ON!  
 요금 부담은 OFF!



\*음성통화 30분(무료 3분 포함) 이후부터는 초단위 과금, 데이터는 일일 8.8MB 사용 시까지 5천원만 부과되며 이후 24시간 동안 과금 없이 200Kbps 속도 이하로 계속 이용가능  
 \*별도 가입 필요 없음 | 별도 로밍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 참조



# 국고채 쓸어담는 외국인... 투자비중 15% 3년來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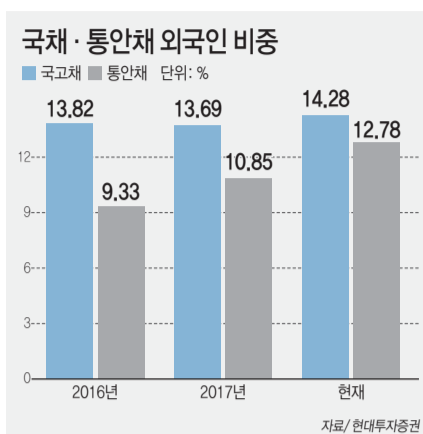
원화채권 투자잔액 107.4兆 기록  
한국경제 신뢰도 기반 증가 추세  
금리인상 등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외국인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고 있다. 국고채 투자 비중은 15%에 육박하며 3년來 최고 수준이다.

한국 국채가 외국인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상대적 '안전국가'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무디스가 매긴 신용등급에서 한국은 세 번째인 Aa2이다. 피치가 한국에 부여한 AA- 등급도 네 번째 단계로 신용이 좋다.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보다 S&P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최고 등급(AA)인 독일, 캐나다, 호주 등 3개국과 미국(AA+) 뿐이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 지적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



에서 상황이 달라지면 일시적인 자금이탈이 우려되다. 외국인투자도 단기물에 집중돼 있다.

## ◆韓경제 탄탄, 재정거래 유인 증가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 잔액은 107조4000억원이다. 이미 전 고점 106조2000억원(2015년 7월 6일)을 넘어섰다.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스왑레이트 하락에 따른 재정

거래 유인이 컸다.

한국경제에 대한 두터운 신뢰도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추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예상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컨퍼런스에서 "한반도내 항구적 비핵화 조치가 마무리돼 오는 2020년부터 남북한 경제통합이 시작될 경우 남한의 GDP 증가액이 831억달러(약 90조 원, 연평균 0.81%포인트 증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S&P가 평가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안정적)이다. 또 3984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이 든든한 방어벽이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17억7000만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유지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외화 공급 확대를, 간접적으로 대외 신용도 제고(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을 통해 원화 가치를

끌어 올린다. 원화값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자금을 회수할 때 채권 가격 상승과 함께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스펙트럼도 넓어지는 추세다. 과거 한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큰손은 주로 미국 중국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 채권사랑'에 빠진 모양새다.

## ◆美 금리인상, 유럽 정치리스크 경계해야

현대차투자증권 김지만 연구원은 "한·미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잔고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면서 "스왑레이트 하락으로 외국인 재정거래 유인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세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럽의 정치 리스크 확대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은 "5월 금

등했던 이머징 시장 금리는 되돌림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 확대에 따라 강세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이머징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단기채 투자 비중도 높다. 2016년 9.33%였던 외국인의 통화안정채권(통안채) 투자 비중은 올해 12.78%까지 증가했다.

신한금융투자 신열 연구원은 "주요 투자자는 올해 누적 기준으로 28조원의 국채 현물 순투자를 단행했다. 만기별 순투자는 주로 2년 이하 구간에 집중됐다. 이 구간의 순투자액은 19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비 약 51%의 비중이다"면서 "금리 상승 및 하락이 반복되는 만큼 방향성 리스크가 커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듀레이션 확대보다는 축소를 가능하게 하는 단기물 선호 심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부영, 회장 직무대행에 이세중 명예이사장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공동경영체제

부영그룹은 7일 회장 직무대행으로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사진)을 선임한다고 6일 밝혔다. 취임식은 같은 날 부영태평빌딩 7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로써 부영그룹은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이 공동 경영체제를 갖추게 된다.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은 기획관리, 건설, 영업, 재무, 해외사업, 레저사업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다.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은 법규, 감사 업무 등 법규 총괄을 맡는다.

이 선임 회장은 "투명하고 바른 경영으로 부영그룹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1935년 서울 출생인 이 회장은 인권 변호사 1세대로,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는 경기고,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 법조계에 들어섰다.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 건을 무료 변론했으며,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또 현대합동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1981년),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3년~1995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1993년~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2005년~2009년), 제1대 환경재단 초대이사장을 거쳐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런 공로로 제18회 만해대상(실천 부문)을 받기도 했다.

/채신화 기자

## 전세가율 '뚝'... 보유세 개편 발표까지 지속 전망

매매가 하락에도 하락폭 더 가팔라  
양도세 증가·재초환 등 침체 영향

최근 전세값 급락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증권 윤석모 애널리스트는 6일 '전세가율 하락세 지속' 보고서에서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전세가율 하락폭이 더욱 가팔라 전세가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5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5% 하락했고, 전세가율지수는 전주 대비 0.13% 떨어졌다.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3월 중순 주간변동률이 하

락 전환한 이후 하락폭이 커져 왔으며, 전세가율지수는 2017년 11월 하락 전환해 현재까지 낙폭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윤 애널리스트는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가 시행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엔 예상을 뛰어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규모가 발표되는 등 특히 재건축시장의 분위기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분위기는 6월 말 보유세 개편안 발표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5.8%로 지난 2014년

12월(65.7%)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윤 애널리스트는 "이런 현상은 최근 서울 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지역까지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공급이 늘어난 점이 전세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미분양 증가분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5만9583호로 전월 대비 2.7%(1579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9.0%(1654호) 증가한 반면, 지방은 0.2%(75호) 줄었다. 수도권 중에서는 화성, 평택 등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LH, 신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각 세대 월평균 2500원 절감 예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준공하는 장기임대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모든 신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세대당 130W, 총 2635kW 규모로 설치되며 앞으로 각 세대는 월평균 2500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LH는 앞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

전설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의 올해 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6만 4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8G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된다고 LH 측은 밝혔다.

이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도 연간 19억 원에 달할 것으로 LH는 추정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6월5일 런던 엑스포 행사장에서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신홍희 상무가 KRX 부스를 찾은 해외기관 투자자에게 국내 파생상품시장을 설명하고 있다.

## KRX, 국제파생상품엑스포서 홍보 활동

한국거래소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11회 FIA 국제파생상품EXPO'에 참가해 한국 파생상품시장 홍보 및 현지투자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일즈 활동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FIA 국제파생상품EXPO(FIA International Derivatives EXPO)는 글로벌 거래소, 규제기관, IT계열사 및 정보벤처 등 파생업계관련 기관이 전용부스를 운영하며 유럽지역 기관투자자 및 브로커 등 수천명의 내방객을 대상으로 홍보할

등을 펼치는 유럽 최대의 파생상품 업계 행사다.

한국거래소는 동 기간 동안 전용부스를 운영하여 신규 고객 유치, 유럽지역 투자자 면담 및 1대1 세일즈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한국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홍보활동 펼쳤다.

또한, 유럽지역 규제변화, 암호화폐화 전망 등 파생상품 업계 현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에 참가하여 업계의 흐름과 한국 시장의 시사점을 파악했다. /김문호 기자

## '부동산 특사경' 400명 수사 실무교육

불법 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일을 막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수사실무교육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자를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레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가운데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

된 400여명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적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주요 부동산 범죄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비롯해 미등기 전매, 실명제 위반, 중개사 불법중개, 입주권 불법전매, 토지거

래 허가 위반, 업다운계약, 편법중여 및 상속 등이다.

이들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져 일반 공무원의 단순 현장점검과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특사경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레가 신고 위반(업다운 계약)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



# “보훈,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 모든애국 공경”

## 文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순직소방공무원 묘역 등 참배  
“보훈 예산 사상 첫 5조 돌파  
생존 애국지사 예우금 50%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과 별도로 순직소방공무원 묘역과 무연고 묘지 등을 찾아 참배했다. ‘보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고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이라면서 “그래서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으로 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찾은 순직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순직 소방관 3인의 추모식에서 현화하고 있다. 순직 소방관 3인은 올 3월 충남 아산에서 출동 임무 중 사고로 순직했다. /연합뉴스

소방공무원 묘역에선 최근 순직한 고 김신형 소방장, 고 김은영 소방사, 고 문새미 소방사를 위해 추모했다.

이들 소방관 유족은 전날 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마련한 오찬 자리에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교육생이었던 김은영, 문새미 소방관은 정식 임용 전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면서 “똑같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도 신분 때문에 차별받고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는 두 분을

포함해 실무수습 중 돌아가신 분들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무연고 묘지에선 고 김기억 중사 묘지에 참배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고 김중사는 6·25 전쟁이 난 후 다수의 전투에 참전하다 53년 5월3일 양구전투에서 전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김중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생각했다”면서 “그는 스물 둘의 청춘을 나라에 바쳤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고 없는 무덤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결코 그 분들을 외롭게 두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돌볼 것”이라면서 “모든 무연고 묘소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하면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본격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 예산 규모가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었고,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도 50% 올려드리게 됐다”면서 “참전용사들의 무공수당과 참전수당도 월 8만원씩 더 지급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8월에는 인천보훈병원이 문을 열고, 강원권과 전북권에도 보훈요양병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는 전문재활센터가 생긴다.

한편 정부는 올해 현충일 추념식 표어를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로 정했다. ‘428030’은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 전국에 있는 10개 국립묘지에 안치된 안장자 숫자를 의미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박원순 보훈수당 인상 검토 야당 단일화 신경전

더불어민주 박원순  
“보훈병원 이용 어르신 숙소 만들어”  
바른미래 안철수  
“박원순 이길수 있나” 김문수 압박  
자유한국 김문수  
“박 후보 7년 시정 심판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현충일 기념 행사에서 보훈수당 인상 검토를 약속했다. 야당 후보들도 안보 행보에 나서는 한편,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6일 오후 서울복지타운에서 6·25참전유공자회를 방문해 “취임 후 복지본부장에게 보훈단체를 전부 방문시켜 250여권짜리 보훈종합계획을 발표·시행했다”며 “당시 예산 사정상 못했지만, (보훈수당 인상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인근 집을 몇 채 구입해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다며 시정을 홍보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날 삼청동에서 열린 “나라를 지킨 여성영웅들을 만나다” 행사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발굴하는 일을 지방정부도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로 여유를 보이는 박 후보와 달리, 야권 후보들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날도 단일화에 대한 접점을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6.25참전유공자회를 방문해 경례 자세를 하고 있다. /박원순 캠프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누가 1대1로 경쟁할 때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압박했다.

이어 “누가 2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자구도에서 몇 퍼센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박 시장과 맞붙어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이기 때문에, 김 후보가 대승적 양보를 해야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후보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 저지와 박 후보의 7년 시정을 심판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선의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후보 간 단일화의 구체적 조건에 이견이 있고, 김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는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날 막판 단일화 협상 회동 가능성도 일축했다.

현재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은 야권 후보들에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신문이 조원씨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 서울 거주 성인 928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박원순 후보는 44.7% 지지율을 보였다.

박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가 20.4%, 김문수 후보는 12.3% 지지율을 보였다.

MBN이 (주)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을 통해 지난 2~3일 서울시 거주 성인 800명에게 설문한 결과, 박원순 후보 지지도는 52.3%였다.

김문수 후보는 13.8%, 안철수 후보는 13.7%로 비슷했다. /이범중 기자 jaker@

## “8~9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세요”

선관위, 신분증 지참때 전국서 가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이나 ‘선거정보’ 앱에 나와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투표장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할 때는 기표용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인의 선거구 안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해당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이나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서 인계한다. 봉투는 해당 지역구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

까지 보관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살펴본다.

사전투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투표율은 11.5%였다. 2016년 20대 총선 12.2%, 작년 19대 대선 26.1%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만큼 투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선보다 투표용지 발급기는 1000여대, 기표대는 1만4000여대를 추가로 준비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소시간을 40초로 예상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특별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다.

예방·단속 대상은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와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 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이범중 기자

## “北, 핵 프로그램 내용 공개 중요”

우리 하이노넨 IAEA 전 사무차장

우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차장이 핵시설의 폐기와 감시,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 등은 빠르면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5일(현지시간)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과거

부터 현재까지 했던,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이었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외부로 반출할 의사가 있다면 이 과정은 꽤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 덩어리를 폐기하는 과정은 꽤 쉽다고 볼 수 있다”며 “몇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전하게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루토늄과 경수로의 폐기는 이

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이른 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특정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핵화 이행과 검증 시간에 관해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년 혹은 일 년 안에 많은 것이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핵시설의 폐기와 감시 등은 단 몇 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이 영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 내 여러 지역에 분포돼 있어 인력, 운송 수단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역에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8, 9일 이틀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 세탁기·냉장고·매트리스 등 청소대행 생활가전 업계, 5兆 ‘홈케어 시장’ 놓고 전쟁

매트리스 살균 청소부터 이사청소까지  
가전에 청소결합한 시너지효과 노려  
방판 전문회사, 홈케어 시장에서도 ‘적수’

렌탈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생활가전회사가 이 5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국내 홈케어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소형 생활가전 등을 제조·판매하는 것과 함께 전문 인력을 꾸려 각종 집안일 대행 사업에 본격 뛰어들면서다.

홈케어는 매트리스·카펫 살균 청소에서부터 이사 전후의 주택 청소, 집안 곰팡이 제거, 세탁기·냉장고 청소 등 과거엔 주로 야빠, 업마가 하던 일을 외부 전문회사에 맡기면서 비즈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경우 관련 시장 규모는 50조원이 훌쩍 넘고 관련 업체수만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원그룹 계열사인 교원웰스는 이달부터 비데, 매트리스 관리 등 홈케어 서비스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히 타사 제품도 관계없이 고객이 원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엔 세탁기와 에어컨 등 평소 관리가 힘든 생활가전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침대 매트리스의 경우 오염도 확인, 자외선 살균, 진드기 및 초미세먼지 흡입 등을, 비데는 도기 세척과 고온 스팀 살균 등을 각각 제공한다. 가격은 매트리스케어가 싱글, 킹 등 사이즈에 따라 1회에 3만5000~5만5000원이다.

홈케어시장은 이미 코웨이, 청호나이스, 한경희생활과학 등이 뛰어들었다. 특히 방문판매 전문회사들의 경우엔 정수기, 비데 등을 판매·관리하는 기존 조직을 갖추고 있어 관련 영업과 홈케어 추가 서비스 확대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장점이 있다. 생활가전 분야에서 경쟁하던 이들 기업들이 홈케어 시장에서 또다시 ‘적수’가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원웰스는 홈케어 사업에 뛰어들면서 100% 본사 직원으로 구성된 전문 엔지니어인 ‘웰스홈마스터’ 조직을 새로 꾸렸다. 렌탈사업을 통해 쌓은 전국 200개 이상의 영업망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케어와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곳은 ‘스팀청소기’로 잘 알려진 한경희생활과학의 ‘한경희홈케어’다.

한경희홈케어는 입주청소·베란다 곰팡이제거 등 홈클리닝, 매장·공장청소 등 오피스크리닝,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케어, 보일러·수도배관 청소, 겨울철 창문바람막이 시공 등 집안일 대부분을 두루 서비스하고 있다.

한경희홈크린은 청년 또는 부부가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도 열고 있다.

정수기, 비데 등에 이어 매트리스 렌탈 사업을 시작해 재미를 보고있는 코웨이기도 매트리스 관리 뿐만 아니라 에어컨 관리, 의류청정기 등으로 케어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판매·렌탈·관리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의 경우 오염도 측정→침대 프레임 클리닝→프레임 위싱→사이드 엣지 클리닝→매트리스 클리닝→진드기 제거→UV살균 등의 단계를 거친다.

섬유회사에서 에이전트로 일한 뒤 코웨이 ‘홈케어 닥터’가 된 강인규 팀장은 “서비스 수수료, 영업 수수료,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 등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 구조에 끌려 시작을 했다”면서 “신입에게 주는 초기 정착금과 닥터 급수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제도 덕분에 목표를 갖고 일을 배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청호나이스도 ‘PCC(프로페셔널 케어&클리닝) 전문요원’을 통해 매트리스 관리 등 홈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청호는 입문교육과정, 동행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등을 통해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교원웰스가 새로 론칭한 매트리스 ‘홈케어서비스’



코웨이 홈케어 닥터가 매트리스를 청소하고 있다.

## 40대도 입행 가능... 부정입사땀 채용 취소



은행권을 채용비리 사태로 몰아넣은 ‘임직원추천제’를 비롯해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이 앞으로 모두 금지된다. 이에 따라 30~40대 신입행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은행들이 영업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정했던 입점 대학이나 주요 거래대학 출신도 우대하지 못한다. 다음은 은행연합회가 지난 5일 내놓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관련 일문일답이다.

### 은행채용 일문일답

#### —모범규준 마련의 기본원칙은.

“은행산업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및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다른 민간 은행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신입직원 채용시 개별은행의 자율성, 유연성, 다양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했다.”

#### —모범규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 —은행의 모든 직원 채용시 적용되나.

“은행의 ‘정규 신입 공채’가 대상이다. 특정분야나 직무에 대한 전문적 경력의

나 자격을 필요로 해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비정형적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력직, (전문)계약직과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보훈·장애·기초생활수급자·특성화고 등)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규 신입 공채가 아닌 직원 채용시에도 각 은행별로 채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소수인원을 채용할 때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나.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규 신입 공채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경력, 자격 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경력직 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범규준 적용을 제외한다.”

#### —특정대학에 대한 우대나 차별은 없어야 하지.

“모범규준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로 인한 우대나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있었던 입점 및 거래처 대학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어질 것이다.”

#### —필기시험 도입은 의무사항인지.

“간간은행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필기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다만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은행들은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필기시험 도입 관련해 지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은행고시’ 부활, 성적순 출세우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채용방식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존 대부분의 은행 채용과정에서는 서류전형을 통해 다수가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면접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수에게 필기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통한 지원자에게 면접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필기시험은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의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 등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 —채용과정에 외부인사 참여 범위는.

“외부인사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선발 전형 중 1개 이상 전형에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채용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부정입사자에 대한 처리방안은.

“부정입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부정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게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피해자 구제방안은.

“부정입사자로 인한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확인 후 도래하는 최초 채용시 피해 발생 바로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필기 단계 피해를 입었다면 면접응시 기회를 주고, 최종 면접단계에 피해를 봤다면 입사 기회를 주게 된다.”

####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배정이 가능한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전국에 영업점이 소재하고 있는 은행들의 특성상 실제 지방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모범규준에서는 사전에 선발기준을 정하고 채용분야를 구분하여 직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편성이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소파 리폼 외길 30년 리폼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 낡은 소파 · 의자를 처음 모습으로 되돌려드립니다

### 소파·의자 / 리폼·천갈이



- 가정용 소파, 의자 천갈이(천, 레자, 가죽)
- 국내외 명품소파 전문수리
- 쿠션관계 등 모든 수리, 부분천갈이
- HOTEL, RESORT, 병원 Maintenance(보수 유지 관리)
- 기업체 관공서 의자류 리모델링
- 국내외 명품 패브릭, 가죽 다양하게 보유
- 가죽소파, 의자 염색재생

[www.seoulsofa.co.kr](http://www.seoulsofa.co.kr)

**서울쇼파**  
seoulsofa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491

전화 한통으로 서울쇼파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전국 어느곳이나 가능합니다)

콜센터  
(무료전화)

**080-717-7744**

- 서울강남지사: 080-717-7744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서, 양천, 동작, 영등포, 여의도, 관악, 금천, 구로)
- 서울강북지사: 02-822-7798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은평, 마포,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 노원, 강북)
- 경기북부지사: 010-3335-1765 (일산, 덕양, 파주, 교하,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양평, 가평, 홍천, 춘천)
- 경인지사: 032-875-4875 (인천, 연수, 송도, 청라, 서구, 영종, 부평, 계양, 부천시전역)
- 경기 남서부: 010-7744-6658 (김포, 강화, 광명, 시흥, 안산, 안양, 평촌)
- 경기 남동부: 080-769-7288 (용인, 수지, 수원, 성남, 분당, 광주, 광교, 동탄, 화성, 오산, 군포, 의왕, 과천, 하남, 이천, 평택, 천안)



# LTE 원가자료 이달 말 공개... '기본료 폐지' 재점화

2G·3G 이어 LTE까지 포함  
이통사 "영업비밀 유출" 반발  
통신비 인하 유도 효과 기대  
이통사·시민단체 공방 전망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통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원가 관련 자료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 될 것으로 보이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기본료 폐지에 다시 눈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통신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기본료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통통신사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까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LTE 원가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가자료 공개는 지난 4월 대법원이 7년여 만에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논의 내용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뤄졌다.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2005~2011년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다만, 다수의 공개정보 요청에 따라

2011년 이후의 LTE 원가공개 쪽으로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은 그간 국민 다수가 LTE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LTE 원가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공개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가운데 영업통계, 영업통

계명세서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핵심은 '원가보상률'이 기재된 영업통계다. 원가보상률은 일정기간 발생한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값으로, 100%인 경우는 영업비용등이 영업수익으로 모두 회수가 됐다는 걸 뜻한다. 즉, 100%가 넘으면 통신사들이 받는 통신요금이 원가보다 높다는 의미다. 통신비 원가 공개가 LTE까지 확대되면서 기본료 폐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 감소 추세인 2G·3G와 달리 LTE의 경우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국내 LTE 가입자 수는 5202만명을 기록했다. 애초 문제인 정부는 공약으로 1만 1000원 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웠지만, 업계 반발로 음성 200분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LTE 원가 공개로 인해 기본료 폐지

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원가보상률로 수익성이 나 국내 통신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 관리에 활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요금을 낮춰야 한다면,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초기에는 요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는 논리와 같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통통신사들은 영업비밀 누설을 우려해 LTE 원가자료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2011년 이후의 자료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의무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 측에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ilkni@metrosecoul.co.kr

## 주요 음식값 10% 경추 서울 냉면 9천원 근접

서민이 즐겨 찾는 냉면과 김치찌개 등 주요 외식 메뉴의 가격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년 새 냉면 가격은 10% 올라 한 그릇에 9000원에 근접하는 등 주요 음식 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서울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7개 가격이 1년 새 올랐고 1개만 지난해와 같았다. 가격이 내린 메뉴는 하나도 없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음식값을 보면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876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962원)보다 10.1%(807원) 올라 가격 인상률이 가장 컸다.

### 외식 메뉴 1년 새 일제히 상승 간편식품 전년 비 3.8% 올라

삼겹살 가격은 200g당 1만6489원으로 지난해보다 5.6%(868원) 올라 상승 폭이 두 번째로 컸다. 이어 김치찌개 백반(2.6%), 칼국수·김밥(1.8%), 비빔밥(1.4%), 삼계탕(0.8%) 순으로 많이 올랐다. 8개 조사 품목 가운데 자장면만 유일하게 4923원으로 지난해와 가격이 같았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식당 음식값을 비교해 보면 삼겹살(200g 기준)이 가장 비싼 서울(1만6489원)과 가장 싼 강원도(1만1444원)의 가격 차가 5045원이나 됐다.

냉면도 가장 비싼 서울(8769원)과 가장 싼 제주도(7000원)의 가격 차가 1769원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가장 비싼 지역은 비빔밥은 대전(8900원), 김치찌개 백반은 제주(7125원), 자장면은 광주(5300원), 삼계탕은 광주(1만4400원), 칼국수는 제주(7250원), 김밥은 대전(2300원)이었다. 소비자들은 앞서 지난달 10일 주요 간편 식품 10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1년 전인 지난해 5월 12일과 비교한 결과 즉석 카레(3.8%), 라면(2.1%), 탕(1.4%), 컵라면(0.2%) 등 4개 품목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주 52시간 근로'... 뷰티업계 근무시간 조정 등 '각양각색'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화장품과 의류, 가구 등 업체들이 사업장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된다. 50~299명 기업에는 2020년 1월부터, 5~49명 기업에는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 화장품과 의류, 가구 등 업체들은 근로 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일찌감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퇴근 시간 PC 자동 오프제, 출퇴근 시간 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집중 근로 등 사업장별, 직종별 특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화장품 공장이나 로드숍 등 매장을 둔 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신규 채용도 검토하고 있다. 여행·관광업계가 근무 형태에 변화를 주고 업무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준비에 한창이다. 반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중에서는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자동화 설비 도입을 고려하는 곳도 적지 않다.

◆**근무 시간 조정·인력 충원**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공장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경산업의 경우, 청양과 대전에 있는 생산 공장 직원들의 근로시간 조정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영업·디자인 등 특별 업무직에게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영향을

### 내달 1일 300인 이상 기업 우선 적용

- 화장품·패션·가구
- 유연 근무제·2교대·신규 채용 등 사업·직종 특성 감안한 대책 마련
- 중소기업·여행·관광

### 인건비 부담·생산 차질 등 '울상' 여행 "소득 줄어 여행 소비 줄 것"

미칠 것으로 보고, 이달 한달 동안 실태 점검을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LF, 한샘, 한샘 등 패션·가구업계가 일찌감치 도입에 나선 유연 근무(플렉시블 타임)제가 화장품 업계에서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코스맥스는 지난 1일 출퇴근 수요 조사를 통해 사무직과 연구직에 탄력근무시간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했다. 또 화성 4개 공장의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생산성 향상 방안과 인력 채용을 동시에 검토한다.

미샤와 네이처리퍼블릭 등 매장을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화장품 영업장은 소비자 상담 결과가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 시간을 줄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매장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 2교대 근무, 집중 근무제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여행 관광업계는 '울상'**  
이미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곳이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둔 기업들은 유연근무, 퇴근시간 PC 자동 오프제,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늦은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빌딩. /연합뉴스

많은 대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도입, 신규 채용 등을 계획하며 차근차근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영세 업체들은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기술·기능직 분야의 인력이 부족해지고,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을 빚어 납기 준수가 곤란할 것이라 우려도 뒤따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신규인력 충원과 공정 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력 채용은 쉽지 않고 경쟁 심화와 효율성 악화로 오히려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행·관광업계도 기대 보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활동이 증가하리라는 예측도 있지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행업계의 경우 직원 300명이 넘는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몇 군데 되지 않아 당장 7월부터 영향을 받는 곳은 많지 않다. 다만 소규모 여행사나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여행사 등은 적은 인원이 장시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적용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는 양쪽 측면 모두에서 여행업에 악재"라며 "지금도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길어서 여행을 못 가는 것이 아니니 근로시간을 규제해 소득이 준다면 여행에 대한 소비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식약처 '아이코스·글로·릴' 필연형 전자담배 유해성 평가 오늘 공개

아이코스, 글로, 릴 등 필연형 전자담배에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결과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필연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 코리야의 '글로', K

T&G의 '릴' 등 3종류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담배 성분의 국제표준 측정방법인 ISO(국제표준화기구) 방식과 헬스 캐나다(캐나다 보건부) 방식을 바탕으로 인체에 해로운 니코틴 및 타르 등 유해물질들이 필연형 전자담배 흡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검사해

왔다. 앞선 국내의 연구에서는 필연형 전자담배에서도 타르, 니코틴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필연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필연 담배와 다르다. 전용 담배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쪄는 방식이다.

이에 담배업계는 쪄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증기에는 유해물질이 적게 들어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필연형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을 고려해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오는 12월부터 부착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담배협회는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이므로 필연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정책브리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산·재·소비 재·유통분야의 중국에 진출한 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관급 투자유치로 中서 5억달러 투자신고

산업부, 中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정부가 '사드 보복'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장관급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5억 달러의 투자신고를 받았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올해 들어 회복세인 중국의 한국 투자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장관급의 대중 투자유치는 2016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라운드테이블에는 JCET(반도체), EVERCARE(바이오), 베이징자동차(미래형자동차), 스피어헤드(콘텐츠) 등 유망 분야 12개 기업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이들에게 한국의 투자 매력을 설명하고 합작법인 설립이나 기술제휴 등을 바라는 중국기업과 기술력 있는 한국기업을 연결해줬다.

백 장관은 "동북아에 전에 없는 긴장완

화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이 한중 양국 모두에게 도움될 미래 지향적 관계발전을 뒷받침할 투자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중국 투자가로부터 약 5억 달러(약 5350억 원)의 투자신고를 받았다. 투자 분야는 자동차, 소비재, 식료품, 바이오,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양했고 투자 방법도 단독투자, 합작법인, 지분투자 등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중국발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하도록 밀착 관리하고 이를 통해 4년 연속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 장관은 이날 지난 달 중국정부의 반도체업체 가격담합 등 현장조사와 관련, 한국투자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산재보험 급여 최저임금 이상 보장 유족자녀 수급연령 19→25세 연장

### 노동부,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압류불가’ 전용 수급계좌 운영  
장해·사망 급여 소멸시효 연장

앞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또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해

모든 산재 노동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도 운영된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일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능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부 노동자의 보험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등도 5년으로 연장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고액 부정수급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의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법 공포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복지부, 9억 투입... 바이오 창업 지원

‘김해의생명센터’ 주관기관 선정

보건복지부가 바이오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역 클러스터-병연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김해의생명센터를 선정하고 7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국비 4억원에 김해시·경남도 등 주관기관 5억 원을 더해 모두 9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바이오 창업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임상역량을 보유한 병원과 우수한 시설·장비를 갖춘 클러스터가 지역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먼저 우수 아이디어(기술)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보육 공간 입주 지원,



시설·장비 이용 등을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인 등과의 만남을 통해 임상시험 컨설팅, 서비스나 제품의 상용화 전략 등에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병 협력 연구회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포럼 및 세미나 등 지역 네트워크 축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와 협력해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을 통해 제품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신설

반려동물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동물보호와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설치된다.

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복지정책팀’이 농식품부 본부 내 과 단위 부서로 신설돼 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 농장에서 기르는 농장동물 등 마릿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 지난해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593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8%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

로 나타났다.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도 2015년 251만 마리에서 지난해 308만 마리로 증가했다.

동물복지정책팀은 앞으로 동물 유기·학대 방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 강화, 축산 사육환경 개선 등의 정책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장은 “전담 부서 신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공군 ‘블랙이글스’ 추모비행

6일 오전 대전 국립대전현충원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추모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2년까지 ‘거점 유통센터’ 10곳 개설

해수부, 수산물 가격 등 수급관리  
유통 기반마련 등 4대 전략 제시

앞으로 수산물 처리 전 과정의 위생 상태를 높이는 ‘거점형 청정 위판장’이 전국 10곳에 조성된다. 또 정부가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해 정부 비축 및 가격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수산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을 수립하고 지난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최근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간편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양가치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수산물 유통분야는 시설의 노후화와 산업의 영세성 등으로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연근해 수산물의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



해양수산부는 5일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 유통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청사진을 담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기반 마련이라는 4대 전략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산지 위판장에서 수산물이 처리되는 전 과정(양육-선별-위판-배송)의 품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10개 수산물 거점지역에 ‘거점형 청정 위판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우수 위판장에게는

관련 예산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전국 수산물 산지 거점에 거점 유통센터(FPC)를 조성하고, 주요 대도시 권역에는 소비자 분산물류센터(FDC)를 구축해 산지위판장-FPC-FDC-소비자(도매시장, 대형마트 등)를 연계하는 전국단위 ‘신(新)수산물 유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우선 2022년까지 FPC는 총 10개소, FDC는 6개소의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해 정부비축 및 가격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수매 지원 규모를 확대해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어종별·지역별로 상이한 어상자와 소포장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기존 플라스틱 어상자의 문제점(미끄럼, 뒤집힘 등)을 개선한 어상자 개발·보급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번 로드맵의 이행을 통해 수산물의 위생·품질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로 수산물 소비량이 지속 증가하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산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백지화

# 광주시-서희건설 법적분쟁 예고

광주시, 300억 규모 주차타워 건립 서희건설, 손해 청구 등 소송 검토



호남고속철도 복합환승센터로 활용될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전경. /뉴시스

광주시가 수년째 표류해온 2000억원 대 규모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사업자 측에 최종 '사업종료'를 통보했다.

사업자인 서희건설컨소시엄 측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행정 효력정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어 심각한 법적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희건설컨소시엄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지난 2013년 7월24일 협약 체결 이후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고 한국철도공사와 진행해 온 환승주차장 협상도 무산됨에 따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이였다.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광주송정역 일대 19만㎡ 부지에 환승, 판매, 업무, 자동차시설과 함께 7200㎡ 규모의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이번 사업종료 결정에 따라 지난 2010년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7년6개월, 서희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4년11개월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광주시는 복합환승센터 대신 코레일 주도로 300억원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컨소시엄의 주관사인 ㈜서희건설 측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종료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각적인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광주시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업종료 통보에 따른 법적소송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취소와 함께 그동안 소모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개발하려던 광주시의 당초 계획은 무산되고 지난한 법

적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환승센터에서 주차타워로 변경될 경우 1913송정역시장 등과 연계한 문화시설 확충은 물건너 가고 1500면 규모의 주차빌딩과 일부 편의시설만 들어설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선 KTX에 이어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까지 개통되면서 광주송정역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늦어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공개발로 주차타워를 건립할 경우 재정적 부담을 덜고 공사기간도 대폭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2010년 선정한 복합환승센터 시범역은 전국에 모두 8개로, 이 중 완공된 곳은 동대구역이 유일하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벌집제거·동물포획·문 개방

## 생활민원성 신고 '긴급·비긴급' 선별대응

전남도소방본부 시범운영 실시



전남도소방본부 소방대원이 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도소방본부는 무분별하게 쇄도하는 생활민원성 119신고들 '긴급'과 '비긴급'으로 선별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119 생활안전활동 출동 기준'을 마련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도소방은 생활안전출동 기준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으로 구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사항의 경우 곧바로 119가 대응키로 했다.

반면 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잠김이나 동물 퇴치 등의 경우 110으로 이관해 유관기관에 이첩 또는 자체 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소방본부의 지난해 구조 건수는 총 3만 173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59%인 1만 8734건이 단순 생활안전활동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벌집 제거 9158건(48.8%), 동물 포획 5275건(28.1%), 안전 조치 1635건(8.7%), 문 개방 1503건(8%) 기타 1163건(6.4%) 순이었다.

그동안 생활민원성 출동 대부분을 처리해온 소방의 출동시스템은 순직사고 발생, 화재 등 긴급상황 대응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소방본부는 8월 말까지 비긴급성 신고 자체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119 생활안전활동 출동 기준'에 따라 선별 대응 출동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한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동하 전남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소방 본연의 임무인 화재·구조·구급 등에 집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9 생활안전활동 출동 기준을 마련했다"며 "도민의 많은 협조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 '때 이른 무더위' 광주 수두 등 감염병 주의

유행성이하선염 환자 78% 증가  
손 씻기·익혀먹기 예방수칙 당부

때 이른 무더위로 수두 등 각종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어 광주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관내 의료기관에 신고된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환자가 각각 297명과 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96%, 78% 증가한 수치다.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된다.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의 30~40%가

량이 귀밑 침샘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이 있으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로 전파될 수 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예방접종을 제때 하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 5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열과 함께 입안·손발의 수포성 발진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족구병은 5월부터 발생해 6월 말 최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성 접촉성 감염병으로 대부분 증상 발생 후 7~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하지만 드물게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 중증 질환이 동반될 수 있어 고열·구토·무기력증·호흡곤란·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족구병은 아직 예방백신이 없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집 등에서 장난감 등 아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광주시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해져 식중독·비브리오 패혈증 등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 예방을 위해 모기 활동이 활발한 야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 긴 소매 옷 착용, 개인용품 관리 등을 권고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 전남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농수산물 '746만 달러' 수출협약

전남도는 농수산식품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1일까지 3일간 목포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746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중소기업진흥원과 광주전남KOTRA지원단이 공동 주관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전남도 해외통상사무소 공동으로 바이어를 물색해 미국, 인도, 일본, 유럽 등 11개국에서 20명의 바이어를 초청했다. 전남지역 참가 수출기업은 72곳이다.

상담회 결과 장흥식품 등 5개 기업이 미국 왕글로벌넷(WANG GLOBALNET)사와 230만 달러의 계약을 이룬 것을 비롯해 25개 기업이 13명의 바이어와 총 746만 달러어치의 계약(MOU포함)을 체결했다.

이날 총 244건의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김, 미역, 소금, 젓갈, 전복류 등 수산물의 인기가 좋았다.

그 외에도 장류, 유자차·녹차 등 차류, 고구마식품도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바이어들은 또 수출기업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앞으로 추가 상담에 나설 예정이어서 수출 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 신안·무안, '낙지 갯벌목장' 4곳으로 확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갯벌낙지의 자원량 회복에 효과가 큰 '낙지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이달 말까지 신안·무안 지역 4개소 34ha를 조성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남의 낙지 생산량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5477t이 생산됐으나 남획과 여장 환경 변화로 자원량이 점차 줄어 2017년 4036t이 생산됐다.

공급량이 부족해 소비자 가격 상승하고, 수입량(3만6265t)이 늘고 있다.

낙지목장은 갯벌이 잘 발달된 마을어장에 번식장을 조성해 육상 수조에서 교접(교미)을 마친 암컷을 번식장에 방사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적 관리를 통해 자연환경에서 부화·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형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 낙지 자원 회복 연구를 통해 해당 어촌계에 기술이전을 하고 순천, 무안, 신안, 함평지역 12개소 67ha에 이미 낙지 6천여 마리를 교접·방사해 목장을 조성해왔다.



/유토이미지

지난해 낙지목장 조성지역 자원조사를 한 결과, 낙지 서식량이 2.3~5.3배 늘었고, 생산량이 평균 54% 이상 증가했다. /전남 완도=김남중 기자

## 육군 31사단장에 소영민 소장 취임

소영민 소장(사진)이 육군 31사단 38대 사단장으로 취임했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지난 4일 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소영민 38대 사단장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에는 지역기관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초청인사, 부대 장병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명령낭독, 부대기(지휘권) 이양, 열병, 작전사



령관 훈시 등으로 진행됐다. 신임 소 사단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1988년 학사 11기로 임관해 6사단 19연대장과 육군본부 인력획득과장, 육군본부 제대군인 지원처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35년 제조업 한우물... 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이사

# “아무리 좋은 제품도 5년이면 끝”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아이템 수명 주기 갈수록 짧아져 사업 난항 등 여러 상황 생각하며 대처 방법·아이템 마련해둬야 사업 네트워크 중요성도 강조



지난 4일 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이사가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 강의를 하고 있다. /ESC 상생포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이사는 지난 4일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 강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소비자에게 외면당했다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사업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35년째 제조업에 몸을 담고 있다는 강 대표는 금성사(현 LG전자) 인사담당자로 사회에 발을 들였다.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 입사했기에 고향에서는 대단히 출세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직장생활이 본인과 맞지 않다고 느껴 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시작했다.

강 대표는 “그 때는 지금처럼 주52시간 같은 말도 없었다”며 “새벽에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는 일상에 컴퓨터도 없어서 전부 손으로 썼고 일주일에 3일은 회사에서 잤다”며 직장 생활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사업의 시작은 순조로웠다. 충청도 천안쪽에 당장을 빌려 수리하던 당시 인기 있던 ‘골드스타’ 브랜드의 비디오플레이어를 생산·제조해 공급했다. 사업을 시작한지 3년 만에 직원 수는 350명이 됐다. 강 대표는 “그 때는 열심히만 하면 됐던 시절”이라며 “인건비가 저렴하고 인력도 풍부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디

오플레이어의 인기는 자연스레 시들었다. 그 후 그는 무선통신부품을 제조해 국내 대기업에 공급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외국의 유명브랜드 제품을 선호했던 구조 탓이다.

강 대표는 고민 끝에 홍콩의 유명한 잡지에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영업사원에게 주는 봉급이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꾸준히 광고를 내보내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홍콩에서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했고 무선호출기(일명 삐삐)를 만들어 수출했다.

삐삐가 인기를 끌면서 삐삐의 원자재 품귀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강 대표는 1년 치의 원자재를 일본에 주문해 놓기도 했다. 하지만 삐삐의 인기는 휴대폰의 등장과 함께 단번에 사그라들었다.

강 대표는 “삐삐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고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무 자릿수 사라졌다”고 말했다.

시련이 찾아왔지만 강 대표는 과감하게 삐삐를 접고 휴대폰 충전기로 사업을

전환했다. 그는 “삐삐에서 휴대폰 충전기로 전환하는데 3년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다”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가늘더라도 버티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기회가 온다.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끝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가지 아이템에 집중하는 것 대신 복수로 갈 방법을 찾으라는 조언도 건넸다.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갈수록 주기가 짧아져 그게 무너지면 사업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대표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아무리 좋아해도 5년이 지나면 싫증을 느낀다”면서 “7~8년에 한 번씩은 본인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외면당했다고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강 대표는 사업에서 네트워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나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89년에 8명이 이업종교류회를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는 7000여개의 회원사와 25만 명의 조합원이 소통하고 있다.

30여명이 모이는 단위교류회에는 각기 다른 업종만 들어간다. 경쟁사가 없으니 자기 사업을 보여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네트워킹을 형성한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이업종교류회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제단체가 없다”면서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근로자와 성과공유 中 小 本 격 발 굴

중기부 “세제혜택 별도 추진”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간 성과공유를 위한 제도가 본격 시동을 걸게됐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한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성과급 등 특별급

여는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로 시행될 제도를 통해 중기부는 성과공유기업에 대해선 경영컨설팅, 수출, 연구개발,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해 지원하고 세제지원도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 윤범수 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마트 자체브랜드 ‘무선 선풍기’ 출시  
이마트가 오는 7일부터 전국 100개 이마트 점포와 일렉트로마트, 이마트 물에서 자체브랜드 무선 선풍기 ‘리빙홈 코드리스 팬’을 출시한다고 6일 전했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7일까지 행사 카드로 구매 시 20% 할인 행사를 펼친다. /연합뉴스

## 시몬스, 고양 스타필드에 ‘팝업 스토어’

이달 17일까지 진행

시몬스는 오는 17일까지 경기 고양 스타필드에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시몬스 측대는 행사 기간 동안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를 비롯해 시몬스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퍼니처 등 베스트셀링 제품들을 선보인다. 팝업스토어 방문 고객 대상으로 시몬스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특별한 가격 혜택과 선물도 제공한다.

뷰티레스트 컬렉션은 POSCO의 경강

선만을 이용한 시몬스 고유의 포켓프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구현한다. 또한 탄력, 지지력, 형태가 다른 포켓프링을 사용자마다 다른 신체 곡선, 무게 중심 등을 고려해 조합하고 배열하는 독보적인 ‘조닝 시스템’과 50여종의 내장재를 다양하게 조합·배치하는 ‘레이어링 기술’은 섬세한 지지력과 시몬스 고유의 안락함을 형성한다.

아울러 포켓프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최고 품질과 디자인을 입은 매트리스’로 소비자 감성까지 충족시키며 예비 신혼부부 사이에서 인기가. /김승호 기자

## 가스공, 정보보안 혁신 위해 팔 걷는다

‘자율 보안문화 정착의 해’ 선포  
현장 보안 강화활동 추진

한국가스공사는 올해를 자율 보안문화 정착의 해로 선포하고 정보보안 관리체제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앞서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정보보안 담당부서 ‘통합보안처’를 안전기술부사장 직속 부서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올해를 ‘자율 보안문화 정착의 해’로 선포하며 정보보안 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립한 ‘정보보안 분야 혁신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정보보안을 규제에서 경영전략으로 인식을 전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정보보안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도 예정됐다. 정보보안 우수사례 및 보안 슬로건 공모전을 열고 우

수 직원에게 포상해 정보보안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밖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27001) 운영 강화와 전국 사업소 무선 침입방지 시스템 확대 구축 및 정보보안 전담 인력 배치 등 현장 보안 강화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월 정승일 사장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조직, 인사, 전략 등 전 분야로 구성된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래 지향적인 혁신 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서한길 기자 og@

## 이노비즈協,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해 3492명 추가 지원

이노비즈협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3492명을 추가 지원키로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의 경우 1600만원, 3년형은 3000만원을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 근속을 한 뒤 지원받게 된다. 또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인건당 연간 최대 900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 말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3년형이 새로 생기면서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 가운데 2년형에 가입했다라도 3년형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생애최초취업자 등 자격조건이 맞을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협회는 특히 많은 규모의 인원을 채용 연계하는 수도권 참여 기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기업)관리시스템’도 기업들에게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6월 중순 이후엔 근로자의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참여 자격 자가진단’ 기능도 추가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30초 만에 세척 ‘뚝딱’... ‘휴롬디바’ 인기

휴롬 원액기 신제품

휴롬이 세척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해 출시한 ‘휴롬디바’ (사진)가 인기가.

6일 휴롬에 따르면 휴롬 디바는 매일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쉽고 편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제품이다. 이를 위해 구조를 단순화했다.

기존 원액기의 촘촘한 미세망대신 2개의 필터를 사용해 찌꺼기가 끼지 않아 세척하기 훨씬 쉽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필터 세트를 분리해 물에 헹구기만 하면 30초 안에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 게다가 날카로운 칼날이 없



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씻을 수 있다. 본체 상단부와 드럼 하부의 흡을 끼우기만 하면 한번에 조립할 수 있어 간편하다. 두 개의 투입구가 적용된 듀얼호퍼는 기존 원액기보다 넓어진 사이즈로 크기와 형태에 따른 재료 투입이 편리해졌고, 안전한 투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김승호 기자



# 기부금·후원 활발... 사회적 책임 늘리는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엔비 '먹네이션' 공헌 활동**  
**한솔 기업이념 바탕 'ESG 경영'**  
**원앤원 생신잔치 등 이웃사랑 실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등록된 외식 프랜차이즈의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악재나 불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이같은 호실적 속에서 기부금도 함께 늘리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프랜차이즈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가 비도덕적인 행위로 부정적으로 매도되는 가운데 실천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6일 다트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엔비의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5.59%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의 통상적인 기부금 비율인 '영업이익 대비 1~2%'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교촌은 '먹네이션(먹다+도네이션)'으로 알려진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스템화했다. 원자재 출고량 1kg당 20원씩을 적립해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한 교촌의 기부금 규모는 6년 전과 비교해 817%나 증가했다. 지난 2012년 당시 1억2000여만원에 불과하던 기부금은 지난해 11억4000여만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 증가세는 124%로 매출 증가세보다 오히려 기부



교촌치킨이 아동복지시설 '해심원'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



한솔도시락이 금천장애인복지관에 도시락을 후원했다.



원앤원 '제12회 청계천 은빛 사랑나눔' 행사. /교촌에프엔비·한솔도시락·원앤원

금 증가세가 6.6배 이상이나 더 컸다. 이는 말 그대로 '배는 만큼 기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을 크게 늘려 나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원자재 출고량을 기준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기금이 지속적으로 적립된다"며 "판매량이 증가하면 적립되는 기금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사회에 환원되는 금액도 비례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도시락 전문점 한솔은 '따뜻한 도시락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하고 있다. ESG 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

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경영을 말한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요 시되고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한솔의 사회공헌 활동이 주목 받는 이유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정성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사회공헌 활동의 빈도가 늘고, 강도가 세지고 있다. 그 종류도 다양한 장애인, 노약자, 장학금, 사랑의 밤 차갑장나눔 행사, 굿네이버스 기부, 각종 행사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달려가고 있다.

또 기부를 기업문화로 일상화 하고 있다. 실제 기부금의 규모도 2015년 8900여

만원에서 2016년 2억8300여만원으로 200% 넘게 늘렸으며, 2017년에도 3억2590여만원을 기부했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의 비율도 평균 4.8%로 높았다. 한솔 관계자는 "한솔은 지역과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기업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해 경영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할머니보쌈·족발로 잘 알려진 원앤원도 많은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350여만원을 기부했으며, 이는 영업이익 대비 6%에 이른다. 매일 서울 황학동에 위치한 원할머니 본점(원할머니 본가)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신잔치를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 어르신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공

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원앤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실천해 나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은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의 부정적인 인식을 차치하고라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불황 속에서도 서민형 창업아이템인 프랜차이즈업계를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업계를 대표하는 몇몇 기업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늘리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국민 1명당 최소 20개 먹었다... '맥스봉' 누적판매 10억개

**CJ제일제당**

**미니소시지 브랜드 맥스봉 15주년**  
**점유율 50% 육박... 1위 자리 굳건**

올해로 출시 15주년이 되는 CJ제일제당 미니소시지 브랜드 '맥스봉'의 누적 판매량이 약 10억개를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03년 5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맥스봉의 누적 판매량은 약 10억개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민 한 명당 최소 20개씩 맥스봉을 즐긴 수치다.

맥스봉은 론칭 후 꾸준한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국내 미니소시지 시장 성장을 주도적으로 견인해왔다. 출시 첫해 매출 20억원대에서 출발해 지난 2013년에는 300억원대 브랜드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800억원 가까운 브랜드 매출을 올렸다. 출시 당시와 비교하면 25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최근 5개년 맥스봉의 연평균성장률은 20%대로, 링크 아스텍 기준으로 지난 2012년부터 1위 자리를 지키며 독주 중이며, 올해(1월~4월) 누적 매출 기준으로는 시장점유율 40.8%를 기록하고 있다.

맥스봉의 활약은 미니소시지 시장 50% 가량을 차지하며 지속적

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편의점 경로에서 더 두드러진다. 1인 가구나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맥스봉은 시장점유율 50%에 육박하며 1등 브랜드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소비자 취향과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한 맥스봉의 끊임없는 변신과 노력이 소비자에게 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시 당시 맥스봉은 주 타깃을 20~30대 소비자로 설정하고 맛과 품질 차별화를 통해 기존 '어린 이용 간식'에서 '프리미엄 간식'으로 소비자 인식 전환을 주도했다. 이후 젊은 소비자층에 초점을 맞춘 제품 라인업 확대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진행한 맥스봉 캐릭터 및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은 맥스봉의 성장에 더 큰 날개를 다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과 5월 제주, 전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대학가를 순회

하며 8주간 '맥스봉 에너지 카페'를 운영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청춘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순회 마지막 지역인 제주 월정리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은 물론 가족단위 여행객들까지 방문해 뜨거운 호응 속에 운영됐다. 맥스봉 에너지 카페가 운영된 전국 7개 지역 10개 카페를 방문한 고객 수만 5000여명에 달했으며, 각 대학별로 맥스봉 에너지 카페 운영에 대한 검토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맥스봉 등 미니소시지 시장은 매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링크 아스텍 기준으로 지난 2015년 1070억원이었던 미니소시지 시장은 지난해 124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올해는 13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올해 맥스봉 출시 15주년을 맞아 1등 브랜드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장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신세계 아카데미 여름학기 안내데스크. /신세계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숨은 VIP 고객 잡아라" 아카데미 회원 대축제

신세계백화점이 숨은 VIP 고객인 아카데미 고객들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회원 전용 행사를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아카데미 회원 대축제'를 열고 아동, 여성패션, 생활 등 아카데미 고객이 많이 찾는 인기 장르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

아카데미 수강생들은 강좌 수강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1번, 최대 3번까지 정기적으로 백화점에 나오기 때문에 구매로 연결되는 확률과 집객면에서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고객이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에서 지난해 아카데미 회원의 백화점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아카데미 회원의 매출은 20% 이상 증가해 작년 백화점 전체 신장률인 4.6%보다 3배 이상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아카데미 회원들이 월 평균 8회 백화점을 방문해 월 평균 1.2회 백화점을 찾는 일반 고객보다 약 6배 가량 내점 횟수가 많아 VIP 고객 못지 않은 주 고객층으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호 장르 역시 수강생의 90%가 여성 고객인 아카데미의 특성상, 여성 고객들이 관심을 갖는 F&B, 잡화, 여성캐주얼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를 가진 30대~40대 여성 고객들이 가장 관심 있는 아동과 생활도 선호 장르 상위권에 위치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롯데百, 내일부터 '루프탑 재즈파티' 진행

**16일까지 6개 점포서 프로모션**

롯데백화점이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본점, 영등포점, 청량리점 등 6개 점포에서 '루프탑 재즈파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근 루프탑은 젊은 고객들에게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뜨거워지는 날씨에 시원함과 야경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존 호텔업계는 물론, 최근에는 카

페 및 유통시설에 도입됐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롯데백화점은 '루프탑 재즈파티'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청량동 유명 재즈바인 '원스 인 어 블루문' 공연팀이 연계하여 준비했으며, 무더위 여름 기간 동안 이색적인 프로모션을 찾는 2030 젊은 고객들을 위해 '영(Young)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루프탑 재즈파티'는 본점(8~9일)과 광복점(8일)을 시작으로 총 6개 점포의 옥상



재즈 공연을 비롯하여 칵테일 바를 운영하고 또한 쿠키, 생과일 등 핑거푸드를 포함한 다양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케이티

에서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6일부터 행사당일까지 백화점에서 구매할 고객에게 초대권을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루프탑재즈파티'에서는 라이브 '서비스도 선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초대권을 소지한 고객만 참여가 가능하다. 백화점을 방문한 일반 고객들도 라이브 재즈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다. 라이브 재즈 공연은 '원스 인 어 블루문' 재즈클럽 소속의 총 5개 공연팀이 참여한다. 보스턴 버클리 음대 출신의 보컬과 베이시스트로 구성된 '보스톤에비뉴'는 본점과 수원점에서, 그리고 서울팝스 오케스트라 수석 외국인 단원들로 구성된 '러시아블루' 팀은 청량리점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 맨몸으로 교통사고 막은 손호진씨에 'LG의인상'

## 차량 막아 세워 의식 잃은 운전자 구해

LG복지재단은 지난 2일 충남 보령시에서 맨몸으로 사고 차량을 막아 세워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한 손호진(35)씨에게 'LG의인상'을 전달한다고 6일 밝혔다.

손씨는 이날 오전 9시경 보령시 동대사거리에서 승합차가 승용차와 충돌해 한 바퀴를 구른 뒤에도 계속해서 주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손씨는 망설임 없이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고, 의식을 잃고 조수석에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발견했다.

운전자를 깨우기 위해 승합차 앞뒤를 오가



리막 구간이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며 소리쳤지만 반응이 없었고, 결국 조수석 창문으로 뛰어올라 기어를 바꿔 차량을 극적으로 멈춰 세웠다.

멈춰선 차량 앞쪽에는 교차로와 내리막 구간이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손씨가 구조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던 사고 차량 운전자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주변에 도움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든 차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저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LG복지재단은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의 의인들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LG의인상 수상자는 77명이다.

구서윤 기자 yun2514@metroseoul.co.kr



롯데, 중소기업 해외진출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6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현지 바이어 구매 상담회'에서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베트남 바이어와 구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쇼핑

# 삼성전자 인포콤 2018서 '더 월 프로페셔널' 선보여

삼성전자가 6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 2018'에 참가해 '더 월'의 상용용 디스플레이 버전인 '더 월 프로페셔널'을 공식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더 월 프로페셔널은 베젤이 없는 모듈러 방식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로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한 미래형 디스플레이로 기업·고급 호텔·박물관·공연장 등 다양한 상업용 공간에 조화롭게 설치 가능하다.

LED 소자 자체가 픽셀 역할을 하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최대 1600니트의 밝기, 넓고 정확한 색 표현, 높은 에너지 효율 등 현존하



삼성전자 모델이 인포콤 삼성전자 전시부스에서 '더 월 프로페셔널'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는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 LED 기술에 HDR10+, 시

네마 LED 화질 엔진까지 탑재해 최대 밝기에서도 저계조 표현력이 뛰어나고 초저반사 기술을 적용해 암실뿐만 아니라 밝은 실내에서도 원작자가 의도한 영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밖에도 더 월 프로페셔널은 충격 방지 LED 특화 기술을 적용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였고 사이니지 전용 소프트웨어 매직인포 6 솔루션을 탑재해 제품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 월 프로페셔널은 인포콤 기간부터 본격적인 수주에 돌입, 미국 등 글로벌 전 지역에 동시 판매를 시작하며 3분기 내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 서울로7017서 댄스 축제 즐기자

여름밤 서울로7017에서 댄스 축제가 개최된다.

서울시는 30일 열리는 '서울로 퍼레이드축제 vol.1.2. 여름밤 댄스대행진'에 참여할 시민축제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은 퍼레이드 축제단, 댄스 축제단, 서울로 북클럽 3개 분야로 서울로7017 홈페이지에서 6일부터 26일까지 선착순으로 400명을 모집한다.

시민축제단(퍼레이드, 댄스)은 아프리카 댄스공연팀 '포니케'와 사전워크숍을 진행, 아프리카 리듬에 맞춘 춤을 숙지한 후 본 공연에 합류한다.

아울러 시는 점심시간에 운영되는 '서울로 떠나는 선풍' 프로그램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동화책, 한국문학, 세계문학, 나만의 책 만들기 등의 순서로 운영된다.

직장인과 주민 등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로7017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로 북클럽 운영 모습. /서울시

## 오늘의 운세 6월 7일 (음 4월 24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건강이 우선이다.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 날. 60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니 우선 의견통일이 중요하다. 72년생 붉은색이 행운을 부른다. 84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이다.
- 소** 49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펴라. 61년생 지칠 수 있으나 외의 큰 이득을 보게 된다. 73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조력자가 옆에 있으니 안심이다. 85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지만 현상유지에 애써야 화평하다.
- 호랑이** 50년생 자손에게 효도 받고 덕 보기 좋은 하루이다. 62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 날이다. 74년생 하늘은 맑고 공기까지 좋으니 마음도 편안하다. 86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것을 이루어 내는 날이다.
- 토끼** 51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있어도 결국은 내게 유리한 날. 63년생 정보를 잘 못 알 수도 있으니 인맥을 이용해야 한다. 75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져니 실망은 금물이다. 87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을 수 있다.
- 말** 52년생 가족의 협조를 얻어서 일을 풀어나가자. 64년생 주변의 실수가 나에게게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76년생 풀리는 듯 하다 꼬이는 일을 주의해야 한다. 88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된다.
- 뱀** 53년생 결박기에 멀쩡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6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돌 곳을 모르겠다. 77년생 항상 태양은 떠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있다. 89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계획대로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 말** 54년생 원하던 일은 꼬여도 의외의 일에서 풀리는 길한 하루이다. 66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을 얻기 좋은 날이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78년생 마음이 상하고 몸은 힘들다. 재물은 얻는다. 90년생 일이 성과를 내서 명예를 높다.
- 양** 55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67년생 격한 감정이 체면을 구길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하라. 79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마음이 편하다. 91년생 뒷사람에게 잘 보여 놓는 것이 내일을 편하게 한다.
- 원숭이** 56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다. 68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으로 나를 곤경에 빠지게 한다. 80년생 사람이 찾아오니 자손에게 기쁨이 생긴다. 92년생 남에게 해를 끼치면 두 배로 돌아오니 주의하라.
- 닭** 57년생 대인관계에서 손해 본 듯해도 결과는 좋다. 69년생 모두 내가 자초한 일이나 마음을 다스려라. 81년생 어제 먹은 음식이 상한 것임을 오늘 비로소 알게 된다. 93년생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면 일이 순조롭다.
- 개** 58년생 머리는 좀 아프나 결과는 좋게 나타난다. 70년생 부상에 신경을 쓰면서 운동해야 한다. 82년생 말실수를 하게 되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된다. 94년생 가까운 날의 성공을 위해 오늘을 잘 보내야 한다.
- 돼지** 59년생 친구는 떠나도 재물은 들어온다. 71년생 아랫사람과 상부상조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83년생 숨겨뒀던 재능을 발견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라. 95년생 매사에 웃는 표정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2	6				8
3	1			7				6
9	3							1
6	5	3	2					9
1	2			6				7
2	7			4				5
8			1	5				3
	1	4			9	8		

5		7		8			3		2
	8	4	3			1	7	5	
	4							9	
	5	1	6					3	
				2			6		
	1	6	7		3				
								8	
2		9		1		5			3

스도쿠 정답								
9	2	8	6	4	1	7	5	3
7	4	1	2	5	9	6	8	3
1	5	6	7	8	9	3	4	2
5	4	9	6	7	2	8	1	3
8	6	7	1	2	5	4	9	3
2	1	9	8	4	5	6	7	3
6	9	5	2	7	8	1	2	4
4	8	1	9	2	6	5	7	3
3	7	2	5	1	6	8	9	4
8	9	5	7	1	8	6	2	4
4	8	1	2	9	6	5	3	7
6	2	7	4	5	1	9	8	3
1	3	9	5	7	2	8	6	4
7	4	2	8	6	9	1	5	3
5	6	8	1	2	7	3	9	4
9	5	4	1	2	7	8	6	3
8	7	6	9	4	5	2	1	3
2	1	4	6	8	7	3	9	5

## 김상희의 四季

###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경우

얼굴이 부쩍 상한 서른 중반의 여성과 상담을 했다. 몸도 축나 보였. 그녀의 고민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녀가 처음부터 아이를 원했던 건 아니었다. 결혼을 하고 신혼 때는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서로 생각이 같았기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부부가 둘 다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병원에서는 둘 중 누구도 문제가 없다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다. 그 즈음에 그녀가 처음 상담을 왔었다. 사주를 보니 남편과 아내 모두 아이가 없는 사주였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사주에 자녀성이 너무 많거나 부족한 사람은 자녀를 두기 어렵다. 남자의 사주가 모두 양이거나 여자의 사주가 모두 음인 경우에도 그렇다. 사주에 인성이나 재관이 너무 왕성한 사람이라면 자녀를 가지려는 욕심은 접어야 한다. 신약한 사주에 식상이 많고 비겁, 인성, 재성이 모두 없는 사람도 슬하에 자녀가 없다. 부부는 그럼에도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서 택한 게 인공수정이었다. 다섯 번의 시술을 실패하고 이번이 여섯 번째였다. 이번엔 착상은 됐지만 부작용이 심했다. 몸은 몸대로 상하고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다. 부부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져서 필자도 가슴이 아팠다. 또 다른 부부는 정반대의 경우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부부인데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았다. 심한 낙담 속에 지내다 그래도 하는 생각에 상담을 청했었다. 사주를 보니 분명 아이가 있는 사주였다. 식상이 왕성하고 신약한데 인성이 있고 재성이 없는 사주라면 자녀가 있다. 사주가 신강한데 식상이 가볍고 인성이 무거우면 자녀수가 적기는 하지만 분명 자녀를 갖는다. "포기하지 마세요. 더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여자는 임신에 성공했다. 기쁜 얼굴로 찾아와 감사인사를 전하던 얼굴이 환했다. 세상일이 그렇듯 아이를 갖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원하는 사람에게는 안 생기고 오히려 원치 않는 사람이 달력 임신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상담을 해주면서도 그 힘겨움에 필자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저런 소원을 모두 이루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주어진 사주의 운세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 물러섬이 있을 때 아픔이 조금씩 덜어진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한국GM 회생’ 향후가 더 중요



김필수의  
자 이야기

정부의 공적 자금 8000억원이 투입되면서 한국GM 회생에 대한 방향이 결정됐다.

필자는 수 개월 전부터 한국GM의 회생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이유 불문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며, 글로벌 GM은 출자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 투입은 지양하며, 노사 합의는 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꼭 만든다는 주장이었다.

어느 하나 어긋난 사안은 없다. 이젠 한국 GM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미 반 토막 난 국내 판매율을 4%대에서 10% 대로 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국내 소비자는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냉정한 만큼 한계가 있는 차종, 장래가 불투명한 메이커에 큰 비용을 수반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 아마 1~2년내에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정부

에서 앞으로 나오는 한국GM의 실사 결과나 자구책 등은 의미가 없어졌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합의한 이상 향후에 한국GM 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GM의 먹거리이다.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차량이 없었던 한국GM의 입장에서는 향후 출시되는 차량이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안다는 입장에서 한국GM의 향후 신차에 대한 완벽한 각오가 없다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합의를 통해 부평과 창원 공장에 신형 SUV와 CUV를 투입한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도 2~3년 후에 출시되는 차량이어서 그 동안 판매할 만한 차량이 극히 적다. 이퀴녹스라는 중형 SUV 등도 출시되나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장담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한국GM에서 향후 10년간 약 15개 신차종 출시 계획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시장의 반응은 무서운 만큼 이전 보다 품질과 가격 등 가성비비를 더욱 높이고 강력한 애프터 서비스로 소비자의 반응을 크게 이끌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당연히

신차의 품질 등 가성비비는 최고여야 한다는 조건은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GM의 의지와 진정성이다. 지난 과거와 같이 적당히 하고 시간만 끄는 노사가 된다면 앞날은 뻔하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이 허리를 졸라매고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앞길을 개척해야 시장은 반응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쌍용차의 과거를 보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정부의 감시 능력이다. 지속적으로 한국GM의 자구책에 대한 검증은 진행해야 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국민의 혈세인 8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상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자신의 돈으로 여기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회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과연 진정성과 노사 노력은 어느 정도인지, 항상 감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호주 등 해외 사례는 말할 필요 없이 참조할 만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검증에 위한 여러 코걸이를 하고 있으나 회사가 도태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협약인 만큼 모두가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김영주 노동부 장관, 제107차 ILO 총회 참석



총회에서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여성 관련 다양한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총회 기간 중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프랑스, 싱가포르 등 각국의 노동 장관 면담을 통해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고용노동부는 김영주 장관(사진)이 지난 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일하는 여성(Woman at Work)’을 주제로 일의 세계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고 6일 밝혔다.

매년 ILO 총회에서는 회원국 정부 및 노사 대표가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 본회의 연설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노동자 대표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참석했다.



신한카드, 위메프와 쇼핑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와 지난 5일 제휴 협약을 맺고 ‘위메프 원더페이 신한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위메프 이용 고객이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원더페이를 활용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설계·출시될 예정이다. 신한카드 김영호 부사장(오른쪽 세번째)이 업무협약 이후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신한카드

# 포스코 회장 선출, 정치권 개입 자제해야



기지 수집  
양성운  
(산업부)

국내 대표 철강기업이자 산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의 새로운 CEO 결정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도 차기 회장 선출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외압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아침 인천의 한 호텔에서 포스코 전임 회장들이 모였다. (이곳에서 한 참석자가) 장하성 청와대 실장 뜻이라며 특정 인사를 포스코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전임 회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역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번 회장 선임과 퇴임 때마다 반복됐던 정권 외압 논란으로 대내외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포스코가 주인 없는 민간 기업인 만큼 외풍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도 외압으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결국 기업을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이 국가 기간산업에 속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입에 끝내야 한다.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주인 없는 기업에 공정한 인사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수년간 제기됐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엄밀히 말해 ‘주인 없는 기업’이란 말도 잘못된 것이다. 포스코에는 엄연히 주주와 종업원과 고객이 있다. ‘주인’이란 기존 대기업처럼 ‘오너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어서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주인 없는 기업이라며 정치권이 CEO 인선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위법’ 논란까지 될 수도 있다.

포스코의 경우 6단계에 걸친 회장 선임 절차가 있지만 매번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회사의 10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포스코의 경우 회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첫째도 주인의식, 둘째도 주인의식이 절실하다.

기존 포스코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번 만큼은 외풍에 흔들리기 보다 포스코의 새로운 출발을 보장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과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 내부자가 회장을 맡아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면 이번엔 새로운 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ysw@metroseoul.co.kr



롯데하이마트, 파트너사 컨설팅 지원협약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5일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롯데하이마트 파트너사 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을 진행했다. 중소 파트너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한다는 게 이번 협약식의 골자다. 이날 협약식에서 다�멕스텍 권기돈 대표(왼쪽부터), 렛테크 김준호 영업이사, 롯데하이마트 김현철 상품본부장, 포에이이디엘 백중순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이베이코리아, 행안부와 마을기업 온라인 쇼핑 판로 지원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도모 및 온라인 쇼핑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왼쪽부터), 이상진 한국마을기업협회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원석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변 대표.

/이베이코리아

## 인사

-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영신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백운만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서문교 ◇과장급 전보 △농지과장 홍인기
- ◆여성가족부 ◇부이사관 승진 △권익지원

## 과장 조신속

- ◆통계청 ◇과장급 임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준비기획단 총괄기획팀장 이민경
- ◆한국수력원자력 ◇상임이사 임명 △ 품질안전본부장 이재동

## 부음

- ▲ 서필순씨 별세, 권흥순씨(대전MBC 국장) 모친상 = 4일 충남 예산종합병원, 발인 7일 오전, 041-331-4444
- ▲ 신복근씨 별세, 정두화(한국수출입은행 국제투자실장)·성화씨(사업) 모친상 = 5일 오전 5시,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측백실, 발인 7일 오전 11시, 장지 수원시림 자연장, 031-218-6588
- ▲ 이순규씨 별세, 이민준씨(전남도의원)씨 부친상 = 5일 오후 9시30분, 나주애향 장례식장1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 장지 나주시

## 보산동 선영, 061-334-9000

- ▲ 박옥진씨 별세, 박재수씨(청주시의정회 회장) 장모상 = 5일 오전 6시, 대전 나진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30분, 042-525-3800
- ▲ 이후인씨 별세, 이동환씨(삼성증권 부산지점장) 부친상 = 5일 대구 영남대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 053-620-4231
- ▲ 문신학씨(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장모상 = 5일 오후 8시 전남 화순 전남대의대병원 발인 8일 오전 10시, 061-379-7433
- ▲ 김춘자씨 별세·아들 현창하(전 남원읍리장협의회회장)·창홍·창용·창문·순녀·순량·순정·순심·순진씨 모친상 = 6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의례회관, 발인 8일 오전, 010-2690-3500
- ▲ 신지균씨 별세, 박경석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모친상 = 5일, 서울대병원장례식장 3층 1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02-2072-2020

# 발레리나 박세은 ‘무용계 아카데미상’ 수상



상 수상자로 박세은을 선정했다. 최고여성무용수상 부문에선 세계 각국 발레단 소속 발레리나 6명이 경쟁했다. 박세은은 조지 발란신의 안무작 ‘보석’(Jewels) 3부작 중 ‘다이아몬드’ 주역 연기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연협뉴스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무용수상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 제1무용수로 활약 중인 박세은(29·사진)이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통하는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의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았다.

브누아 드 라 당스 조직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고 여성무용수



# 오늘 '첫 수능 모평'... "결과 토대로 수시전략 세워야"

## 2019 대입전략

준비정도 진단, 문항·유형 적응  
자신의 대략적 위치 파악 기회로  
채점결과 부족한 유형 보강해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가 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5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0개 지정학원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6월 모평은 수능을 앞두고 평가원이 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는 모의고사 중 하나다. 특히 오는 11월 15일에 시행될 2019학년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으로 꼽힌다.

### ◆ 지원자 전년 대비 4585명 증가

6월 모평에 지원한 수험생은 59만2374명이다. 재학생은 51만6411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7만5963명이다. 지난해 대비 지원자 수는 4585명(재학생 4497명, 졸업생 등 88명) 증가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영역(1교시)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시 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실제 수능과 똑같이 치러진다. 교육부는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학생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자제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모평은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수능의 준비 시험으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수능과 동일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 수능 준비 정도를 진단하고 문항 수준과 유형에 적응하는 기회가 된다. 평가원은 이번 6월과 9월 모의평가가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올해 수능 시험에도 반영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만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해야 한다. EBS 수능 연계교재와 연계 비율을 포함한 이번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과 영역별 출제 방향, 문답지는 각 시험 종료 직후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 채점 이후 취약점 보완해야

이번 모평은 올해 대입에서 경쟁하는 재학생은 물론 재수생이 참여하는 첫 시험인 만큼 전체 수험생 중 자신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또 채점 결과 자신의 취약 영역과 유형을 파악해 공부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특히 수능 성적은 수시모집에서 대학별 최저학력기준과 정시모집에서 대학별

반영 영역이 다르므로,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학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시모집에서 탐구영역 2과목 중 1과목만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1과목에 집중하는게 효율적이다.

서강대, 서울립대, 중앙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이 올해 수시모집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탐구영역 1과목만 반영한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때는 대부분 2~3개 영역만 반영하므로 2~3개 영역에 집중하는게 좋다. 실제로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가천대, 상명대, 숭실대, 인천대(교과성적우수자) 등은 인문계열은 2개 영역 등급 합 6, 자연계열은 6~7 이내를 요구한다.

논술전형에서는 동국대(인문), 서강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은 3개 영역 등급 합 6~7 수준을 적용해 비교적 높은 편이고, 경희대, 한국외대 등은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로 비교적 높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경희대의 경우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중위권 수험생이 수능 성적을 조금만 끌어

올린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특히 중위권 수험생의 경우 모든 영역의 성적을 올리기 쉽지 않으므로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을 우선 순위를 두고 수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인문계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6, 자연계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6~7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시험 채점 결과 자신의 부족한 영역과 문제 유형을 찾는게 필요하다. 시험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집중했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을 찾아 보강해야 한다. 예컨대 꾸준히 준비해 온 국어 영역 고전시가 부분에서 틀렸다면 이에 대한 그 동안의 학습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게 필요하다.

커넥츠스카이에듀 유성룡 진학연구소장은 "자신이 공부했던 특정 영역이나 과목별 세부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대비해 향후 성적 향상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며 "한 번 틀린 문항은 다시 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념 이해부터 재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고려대 지상3층 규모 '한국어교육관' 준공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는 한국어 교육의 새 보급자리가 될 한국어교육관이 지난 5일 준공됐고 6일 밝혔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244.23㎡(1586.38평) 규모로, 45개의 어학 강의실을 갖췄다. 강의실은 전문 어학강의는 물론 학습토론, 그룹스터디 등에 최적화됐고 동아리실과 대형강당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와 커뮤니티 활동이 어우러지도록 옥상 정원도 조성됐다. 특히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최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고려대 한국어교육관이 지난 5일 준공됐다.

/고려대학교

한 활용했고 태양광 설비,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친환경·절약형 건물로 설계됐다. 또 필요시 2개 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한용수 기자

### 삼육대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받는다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18 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시설개선을 통해 보육환경과 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사업 선정에 따라 삼육대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8800만원을 지원받고, 대학 대응자금 8600만원 등 총 1억7400만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에 나선다.

삼육대는 냉난방시설시스템을 교체하

고 회의실, 미팅룸, 휴게실 등 실전창업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창업보육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광현 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역량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기존 창업지원 시설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삼육대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 개소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수기업 창출과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한용수 기자

### 숭실대 제3회 형남음악제 개최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7일 오후 5시 30분 교내 형남홀에서 제3회 형남음악제를 개최한다.

고 김형남 이사장(1905~1978)은 평양 숭실대학 동문이자 서울에 숭실대를 다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재건 숭실대학

제2대 재단이사장이자 숭실대 초대 총장, 제8대 재단이사장을 역임했다.

황준성 총장은 "초대 총장과 이사장으로 봉직하신 고 김형남 박사님을 추모하고 그 분의 숭고한 뜻과 빛나는 업적을 다시금 되새기는 감사와 추모의 음악제를 마련했다"며 "사랑하는 후손과 후학들 모두 함께 추모하고 감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 취업 못해본 대졸 6만3천명... 5년 연속 증가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분석 취업난 지속·경력선호사상 영향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취업 무경험 실업자 수가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사람인이 통계청의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졸이상(전문대졸 포함) 취업무경험 실업자 수'는 6만3000명(전문대졸 1만5000명, 대학교졸 4만8000명)으로 2013년 1분기 이후 5년 연속 증가 추세다.

취업 경험이 없는 대졸이상 실업자는 2013년 1분기 2만5000명, 2014년 1분기 3만5000명, 2015년 1분기 4만5000명, 2016년 1분기 5만5천명으로 매년 1만명씩 증가했고, 2017년 1분기 6만명, 올해 1분기 6만3000명으로 증가폭은 감소했으나,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52%나 증가해 지난 5년간 취업난 지속과 경력 선호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



지난달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분기 대졸이상 취업무경험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대졸은 전년보다 15% 증가했고, 대학교졸 이상은 4% 증가했다.

이들을 포함해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 수는 총 10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2030세대가 8만9000명(85.6%)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15-19세'(1만 3000명), '20-29세'(8만 1000명), '30-39세'(8000명), '40-49세'(1000명), '50-59세'(300명), '60세 이상'(1000명)이었다.

올해 1분기 2030세대 전체 실업자 수는 59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였다. 2030세대 실업자 5명 중 1명은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분기 30대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8000명을 기록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면서 3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용수 기자

### 한세상사 임금동 대표 동국대에 8000만원 기부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는 한세상사 임금동 대표이사(오른쪽)가 대학발전기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동국대는 기부금을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동국대 경영학과(81학번)를 졸업한 임 대표는 지난 2014년에도 2000만원을 기부해 총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학교에 전달하게 됐다.

임 대표는 기부에 앞서 "지난달 로터스관 기공식에 참석하면서 로터스관 건립



(주)한세상사 임금동 대표(오른쪽)가 지난 5일 발전기금 8000만원을 기부하고 한태식 동국대 총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사업이 모교 발전과 도약에 기반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됐다"며 "건립사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다른 동문들의 기부

지를 북돋는데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



# 통일로 가는 길목 ...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2시간대로 가까워졌습니다

주말 예약 99% (2주전 예약시)

# 595만원

등기제 분양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 숨쉬는 곳  
통일전망대·화진포·송지호와 금강산 비경을 간직한 곳  
하루를 머물러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 고성 실제 전경입니다.

\*분양 하계 휴양소, 연수 문의

## 02)541-0113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아시아 경제 신문 리조트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동해안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오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해 비치리조트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에서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 수 있고 힐링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동해안 휴양지로 거품을 뺀 가격에 분양중이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 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패밀리형 53㎡ 595만원, 스위트형 99㎡를 795만원, 로얄스위트형 165㎡ 1,395 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타업체와 비교해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 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구나 선착순 30

명에게는 무료숙박권 20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 한다니 관심 가질만 하다. 또한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가능 하고 필리핀 세부 일본 니가타 말레이시아에 골프와 리조트를 회원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오션 리조트는 100%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제로만 분양을 한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직영 리조트인 동해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 외에도 도고나주 지리산 경주 설악 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과 즉시 가족 카드 5매가 발급 되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가입시에는 무기명 카드가 제공되어 사원 후생 복지로

사용가능 하다. 위치가 동해안 고성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 휴가시에 인기가 좋아 창을 열고 나서면 바닷가 백사장 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 이다. 분양 가격의 반값으로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별장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입금 선착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문의: 02)541-0113 신청금 50만원  
국민은행 469301-01-127-122 (주) 미봉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공정거래 위원회 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과 관광진흥법 상 적합한 등기제로 분양합니다.



제주리조트

## 일본 니가타 골프 창립 회원 모집 태국 치앙라이 답사

그린피,온천 무제한 무료 글든우드 + 청광아이스CC 창립회원 모집, 동북지방 해발 600m 고원지대

**답사라운딩**  
올포함 중식별도  
7월 129만원

북해도보다 시원한 골프! 여름평균 23℃

해발 450m 고원지대 연중 시원한 기후  
**은퇴 이민의 천국 치앙라이**

- 부동산, 비자, 의료, 교육, 은행
- 오리엔테이션 (태국 관광청)
- 골프 지방생 전지훈련 캠프
- 해발 450m 고원지대 연평균 22℃ 시원한 기후
-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 의료 서비스 관광, 국제학교
- 골프 꿈나무 육성, 전지훈련 캠프
- 은퇴 이민, 골프 장기간 체류

2018. 07. 08 - 07. 12 (선착순 30명)  
· 비용 139만원 (왕복항공료, 골프 3회, 호텔비 등 올포함)

- 여름골프 특전!** **비수기 특가!**
- 7월 - 10월
  - 태국 방콕 카오차늑C.C 1일 9만원
  - 필리핀 스텔랜드도C.C 5일 599,000원
  - 라오스 부영C.C 6일 69만원
  - 사이판 라오라오베이C.C 5일 85만원 ~
- 이시어나 항공 이용  
북해도 루스츠 4일 125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 카트피, 송영비)
- 이시어나 항공 이용  
청광아이스 4일 99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 카트피)
- 고마츠 가타야마츠 3색 4일 139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 카트피, 송영비)
- 이시어나 항공 이용  
위해 호당가C.C 3일 599,000원  
(항공료, 숙박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전용카드)

태국 관광청 지원  
IL tour 02-541-4242

건강 스트레스, 성인병, 건강 파트너  
**원적외선 실내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출용 국내 출시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자동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5-6인용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체온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전원 주택, 아파트 거실, 가족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농림, 경영 위주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 콘도 회원권 금매각

법인, 개인 양도자 사정으로 등기 이전 매각합니다.

■ 콘도 회원권 (등기제) 매각 금액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채인	면적	기명	무기명	박수	매각금액
대명	설악 베탈다마크 양명 거제도 경주 제주	회보	✓		20	900
		페밀리		✓		1100
	단양 편산 양명 삼척 우수 일산 스노벨리체 릴리지	스위트			30	2980
		노블살버			60	12000
		노블골드			60	13500
		365 전용채	✓		365	95,000,000
365 전용채	✓		365	110,000,000		
한화	설악 용인 양명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한수안보 제주	회보	✓		30	1380
		스위트			60	2980
		노블살버	✓		60	2980
금호	통영 해운대 제주 설악	스위트	✓		30	850
		노블살버	✓		30	1530
용평	용평 우수 무명포	스위트	✓		30	1530
		노블살버	✓		30	1380
리솜	연안도 덕산 재전	심버	✓		30	1380
		스위트	✓		30	1500
켄싱턴	설악 중주 제주 서귀포 해운대 경주 남원 도고	회보	✓		30	1800
		스위트	✓		30	1200
일성	설악 북구 남양강 지리산	스위트	✓		30	1200

Since 1995  
IL 회원권 거래소 문의: 070-5133-657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3번지 751 B/D 717호  
하나은행 122-910030-25604 신청금 10%



“코로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소금을 갖다 놔더라고요. 소금인 줄 모르고 흡입했는데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실제 마약 하는 것과 얼추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배우 조진웅에게 ‘독전’은 ‘열정’ 그 자체다. 극중 실체를 알 수 없는 아시아의 마약왕 ‘이선생’을 잡기 위해 독한 싸움을 벌이는 형사 원호로 열연한 그는 코로 무슨 가루가 들어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열연을 펼쳤다. 독한 놈들을 상대하기 위해 형사 원호 역시 독해야만 했던 것이다. 결국 조진웅의 이러한 노고는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10일 이상 박스오피스 1위를 찍는 등 흥행 신화에 큰 역할을 했다. 최근 서울 한 모처에서 만난 배우 조진웅은 남모를 고충을 털어놓으며 영화 ‘독전’에 대한 애증을 드러냈다. 이하 일문일답.



-영화 ‘독전’을 촬영한 소감은.

크랭크인부터 생각하게 돼. ‘독전’은 가고자 하는 지점을 잘 짚어가면서 촬영한 작품인 것 같다.

-제작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가 잘 나왔다고 하던데.

시나리오 보자마자 짝 넘어갔다. 별 고민 없이 선택했다. 형사가 마약왕을 쫓는 이야기인데, 어느 영화와 마찬가지로 추격 중 형사가 뭔가를 놓치고, 따가라 보면 없는 구조다. 분명한 건 맞다. 뜨리는 지점들이 확실해서 재미있는 작품이다. ‘마약전쟁’이라는 원작이 있는지는 몰랐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보신 분들이 호평을 하더라. 아마 구성만 비슷하지

# 10kg 감량·마약 연기 등 ‘독한 열연’으로 ‘흥행 독주’ “독전, 씩씩하지만 외로운 영화”

스타인터뷰 영화 ‘독전’ 조진웅

마약 씹 소금 흡입해 괴로워  
열린 결말, 생각 많아져 좋아  
액션스쿨서 독하게 근육 키워

데일 적으로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거다. 정말 호흡 하나 할 때도 고민하게 되고, 환기시키면서 연기했다. 하지만 엔딩 부분에서 어떤 관객들은 허무하게 또는 배신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엔딩에서 류준열(락)의 ‘이제 어찌실건데요?’라는 말이 납득이 됐다. 결론이 안 나오는데 그게 희한하다. 계속 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왜 ‘꽃을’ 원호에 대한 전사가 별로 없다.

말하자면 원호에게 개인성을 줘야 하는데, 수정의 죽음이 트라우마가 돼서 잡아야 한다는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어쩌다가 자전거를 탔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였고 ‘어떡할 거야? 설 거야? 탈 거야?’ 이러한 문제에 처한 인물 같았다. 어차피 영화는 거짓말이고, 모든 영화가 개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린 결말이라 관객들이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실제 같은 마약 연기에 얽힌 에피소드

가 있다면.

코로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소금을 갖다 놔더라. 소금인 줄 모르고 흡입했는데 엄청 고통스러웠다. 마약하고 얼추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과거 YMCA에서 마약 관련 공익 연극을 하면서 투약 정도에 따라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내성이 없는 원호 같은 사람일 경우 그 정도 흡입량이면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었다.

-‘해빙’때에도 감명하더니, 이번에도 엄청나게 살을 뺐다.

다이어트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가씨’ 때다. 그때 언미복을 이미 맞춰놓은 상태였어서 물도 못 마시고, 빼도 박도 못했다. ‘독전’에서는 뛰어나고, 맞고, 때리는 장면이 많아 근육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또 몸이 버티내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체력 기르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작년 한여름에 전남 영광 염전밭에서 촬영을 했는데, 워낙 더위에 약하기도 하지만 체력 때문에 지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액션스쿨에 들어가 독하게 운동을 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근육 만드는 걸 싫어한다. 어릴 때부터 연극 선배님들이 ‘배우가 표현하고 움직이는 데 한계가 생긴다’며 근육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대신 발레, 한국무용을



기본적으로 했다. 움직임이 한결 자연스러워지고, 표현하는 영역도 넓어진다.

-이해영 감독님은 현장에서 어땠나.

사실 ‘독전’의 가장 큰 반전은 맨 끝에 나오는 이해영 감독님의 이름이다. 현장에서 늘 모니터 보면서 좋아하셨고, 즐기면서 참여하셨다. 다른 건 몰라도 이해영 감독의 성품으로 이렇게 독한 영화를 보듬을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감독님 이다 품고 안았기 때문에 ‘독전’이 나올 수 있던 것 같다. 만약 내가 감독이었다면 현장은 이미 파투났을 거다. (웃음)

-‘독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전에 ‘해빙’이란 영화는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었던 영화다. 반면 ‘독전’은 굉장히 씩씩하다. 던져놓으면 혼자 잘 살 것 같은 아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외로움이 많고 여러 영화 같다. 사진/NEW

신정원 기자 sjw1991@metroseoul.co.kr

## ‘신과함께’ 후속편 8월 1일 개봉 확정

성주신 등장... ‘신과함께-인과 연’

지난 겨울 극장가를 강타했던 ‘신과함께-죄와 벌’이 후속편 ‘신과함께-인과 연’으로 올 여름 또 한 번 흥행 신기원을 예고한다. 국내 최초 1, 2편 동시 촬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영화계 안팎의 관심을 모은 ‘신과함께’ 시리즈가 ‘신과함께-죄와 벌’의 흥행에 힘입어 오는 8월 1일 다시 한번 관객을 만날 준비를 끝낸 것.

후속편 ‘신과함께-인과 연’은 한성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 삼차사가 그들의 천 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이승과 저승, 과거를 넘나들며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여름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1편과는 달라진 저승 삼차사의 묵직한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 ‘신과함께-인과 연’에서는 저승과 이승을 넘



신과함께-인과 연 포스터. /롯데엔터테인먼트

어 저승 삼차사들의 과거를 잇는 대장정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이야기와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세계 100개국 이 국내와 동시 또는 8월 내 개봉을 예정하고 있다. /신정원 기자

## 추신수 ‘시즌 10호’ 홈런 폭발... 동점 2점포

텍사스, 오클랜드에 7-4 역전승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0호 홈런을 터트렸다.

추신수는 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나서 4대 2로 뒤진 가운데 7회말 1사 1루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2점 홈런을 만들어냈다.

시즌 10번째 홈런으로 추신수는 2년 연

속 두 자릿수 홈런을 쳤다.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선수로는 통산 최다 홈런 178개로 늘렸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4대 4 동점 홈런을 만든 뒤 8회말 승부를 뒤집어 7대 4로 이겼다. 4타수 1 안타를 올린 추신수는 시즌 타율 2할 6푼 6리를 유지했고 12경기 연속 안타와 21경기 연속 출루율을 기록하고 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경기에서 7회말 동점 2점 홈런을 터뜨린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원 기자

##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 새 옷 입고 컴백

제작사·창작진 등 새롭게 구성

내년 2월 26일~5월 19일 공연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가 2019년 2월 26일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 ‘ALL NEW PRODUCTION’으로 새롭게 돌아온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도시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성경, 셰익스피어 작품 다음으로 많이 읽힌 소설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본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베스트셀러다. 150여 년 간 2억 부 이상 판매되며 오늘날까지 그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탄생한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는 18세기 격동과 혼란의



‘두도시 이야기’ 티저 포스터. /한다프로덕션

시대인 프랑스 대혁명을 바탕으로 런던과 파리의 급변하는 사회상과 그 격변의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

를 담고 있다. 뮤지컬 대본, 가사, 음악을 모두 쓴 질 산토리엘로는 원작에 담긴 낭만적이고 시적인 요소들에 영감을 얻어 10년의 노력 끝에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런던과 파리를 넘나들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 남자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녹여내 ‘사랑과 용서의 대서사시’로 완성했다.

새롭게 돌아오는 2019 뮤지컬 ‘두도시 이야기’는 ‘ALL NEW PRODUCTION’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제작사부터 창작진까지 모두 새롭게 구성된 프로젝트이다. 제작을 맡은 ㈜한다프로덕션의 한소영 프로듀서는 작품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원작자 질 산토리엘로를 오랜 시간 설득 끝에 작품 라이선스를 얻었다.

한편 ‘두도시 이야기’는 2019년 2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공연한다. /신정원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7일

음력 : 4월 24일

수도권 날씨

28~1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1 | 해질 / 19:51

연천 16/28

동두천 16/29

가평 15/30

파주 16/27

서울 18/28

양평 17/29

인천 17/23

수원 17/27

용인 17/27

평택 17/29

백령도 14/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휴전선 없는 한반도

# 北 수질문제 해결, 퍼주기 아닌 '장기적 이익'

#### 글 쓰는 순서

- ① 민간 교류 물꼬 어떻게
- ② 북한의 물길 혁명 인프라가 좌우한다
- ③ 북한 경제개방 어디로 향할까
- ④ 통일을 준비하는 이웃들

국민에게 '휴전선 없는 한반도'는 가상현실(VR)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과 상상이 만난 '증강현실(AR)로 다가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전문가들을 만나 증강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이번에는 북한의 수자원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기술적인 과제를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은 분단 당시의 동서독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독이 수질오염 문제의 원인이 된 동독에 '퍼주기'를 한 결과, 통일독일의 깨끗한 하천이라는 이익이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우리의 경우, 임진강과 북한강에 놓인 남북의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해 '에너지 윈윈'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과 중국은 수자원을 공동개발해 왔다. 압록강 4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의 50%씩을 나눠쓰고, 조중수력발전 이사회도 평양과 북경을 오가며 열린다. 한국도 기존 인프라 사업에 진출할 여지가 있다.

"기존 시설은 낙후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한국은 현대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 현재 압록강에 소형 문악발전소가 중국 투자로 지어지고 있다. 원래는 북한이 짓기로 했지만, 자본이 부

## 임진·북한강에 다목적 댐 만들어 '에너지 윈윈' 해야

족해서 나중에 전력으로 갚기로 했다. 압록강 쪽은 수력발전소를 더 지을 수 있다. 임진강과 북한강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동독이 원인인 뢰덴강 오염 문제는 서독의 설비 비용 부담과 동독의 운용비 부담으로 합의됐다. 우리도 통일과 교류 측면에서 북한 내부와 남북 접경지 오염을 대비·해결해야 할텐데.

"북한은 논밭에서 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이 있다. 독일은 국경위원회를 만들어, 국경의 수자원 오염과 자원 개발 문제를 전부 다뤘다. 우리도 가장 남북 공유하천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 지금은 임진강 수문 개방 시간 등 정보 교환이 가장 중요하다."

-물길 문제도 있다. 북측의 임남댐(금강산댐) 3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저수용량이 현재의 9억에서 26억으로 늘어, 화천·춘천·의암·청평·팔당댐에서 연간 발전량 3억7700만kw/h가 감소할 전망이다.

"북한은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길을 바꾸는 유역변경으로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일으킨다. 북한강도 임남댐(금강산댐) 도수터널 45km를 뚫어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로 물을 돌려버린다. 이러니 16~17억의 물이 우리쪽으로 안 내려온다."

-해결책은.

"황강댐·임남댐·평화의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면 된다. 전력 생산과 홍수조절, 수질관리를 할 수 있다. 황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동안에는 해당 전력을 우리가 대 주고,

대신 북한이 옆으로 틀었던 물길을 되돌려 남쪽에 보내는 식이다. 필요한 전력은 10만~20만kw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한국과 북한 모두 이득이다. 임진강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마을이 많지 않다. 그래서 댐을 크게 지을 수 있다.

우리는 독일을 배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퍼주기'가 이익이 된다. 평화의댐에 물을 채워 배를 띄우고 금강산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도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

/이범중 기자 joker@metroseoul.co.kr

수로식으로 수백km에 걸쳐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이 잘 뺏지 못해 중간에 펌프를 만들었다. 도시의 경우, 상수도 와 오수관을 따로 설계했지만 경제난 이후 관리가 안돼 망가졌을 수 있다. 결국 에너지 문제다. 상하수도나 관개망은 자금 소요가 엄청나다. 북한이 해결하고, 우리는 돕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수력발전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민생과 밀접한 상하수도 먼저 접근해야 할 듯하다. 우리가 전면적인 사업을 펴기는 힘들다. 북한에서 일부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남북한 기술과 인적교류로 시범사업을 펴야 한다. 다만 관광은 금강산, 수자원은 평양 이런 식은 곤란하다. 한 군데에서 경험과 민생사업을 함께 펴 시너지를 봐야한다. 북한에 상하수도 외에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로 펼치는 쪽으로 제안하면, 추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범중 기자



/사진=손진영기자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용환은 북한 수자원 활용의 첫 단추가 '데이터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수력발전은 물론, 관개시설 정보도 투명해야 북한 내 수자원 활용에 대한 남북 간 협의가 '물 흐르듯'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인프라 역시 특정 시범지구에만 함께 구축해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 내 수력발전 분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유역면적(비 내릴 때 물이 모여드는 면적)이 크고, 남북이 바로 접한 임진강과 북한강이 유력해 보인다. 남북 모두 이익이 되는 수자원 개발 전망은.

"우선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비

## 수력발전 등 시설 데이터 불명확 남북 '설비·기술 통일' 첫 과제

용대비 전력 등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명확한 현황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일부 데이터도 탈북자의 증언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이 수력발전이든 관개시설이든 증거가 파편적이고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

-북한의 데이터 제공 가능성은.

"북한이 국가기간산업 정보를 쉽게 내놓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전기(수력발전)도 철도도 중국 설비로 설계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통일이나 본격적인 교류에 추가 비용이 든다. 시스템 의존

성이 높은 국가기간 사업에서 남북 설비와 기술이 통일 되어야 한다. 만일 남북이 관련 논의를 하게 된다면 그 내용이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물 관련 예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틀을 잘 짜야 한다. 넘을 산이 많다."

-북한은 상수도와 관개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5년 여름 '100년만의 가뭄'을 내세워 UN에 수인성 전염병 예방 의약품과 수질 정화제를 요청했다. 상수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북한은 평안남도 지역 관개망을 자연

여기도 상수관이 노후화됐다. 한국이 한꺼번에 돕기는 어려워 보인다."

-향후 전반적인 북한 인프라 개발 전망은.

"도로와 철도가 뚫리면 물이 간다. 에너지가 가고, 그런 패턴으로 돌아갈 듯하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은 기술이 앞선 한국이 세워줘야 할 것이다."

/이범중 기자



#### 조영무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

조영무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깨끗한 물 마실 권리' 실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상하수도 시설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을 한국이 무턱대고 떠안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경험과 기술이 앞선 한국이 세워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북한 내 상수도 보급률은 약 85%로 관측된다. 하지만 상수관로 관리가 제대로 안돼 누수율이 높다고 알려졌다. 상수관로 시설 개·보수에만 시간과 자원이 꽤 들 것 같다.

"상수도 보급률은 그보다 더 낮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로 보면 된다. 현재 우리는 약 97%다. 문제는 북한 수

## 北, 상수도 보급률 1970년대 수준 전체적인 기술계획 韓이 세워줘야

돛물의 질이다. 수질을 평가하는 항목이 우리의 절반에 불과하다. 예전 개성공단에서 수도물을 만들어 공급했을 때, 그곳 수도물이 북한에서 가장 좋은 수도물이라고 평가 받았다. 2015년께 탈북자 인터뷰 할 때는 아파트 4층 이상으로는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에너지 부족 때문인가.

"그렇다. 수도물은 산 위 배수지에 모여 가정으로 들어간다. 자연유하로 떨어지므로, 배수지 높이까지는 물이 다시 올라간다. 북한은 전기 부족으로 그 이상 올리지 못한다. 돈 있는 사람은 개인

우물을 쓴다. 평양 밖에서는 수도물 공급량 자체가 더 떨어질 것이다. 탈북자들은 평양도 기존 상수도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프라 확장이 시급하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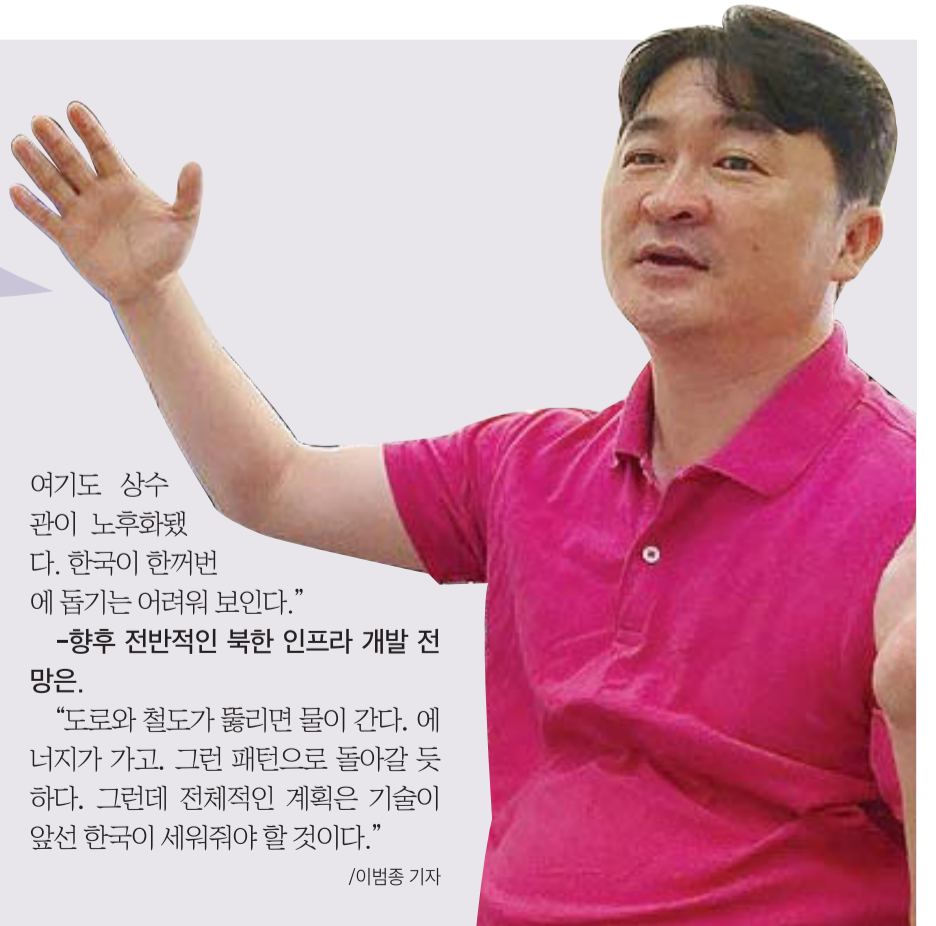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1970년대 후반에 수도물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전담을 포함한 일부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0%대다. 인구 밀집도 같은 효율성을 고려할 때, 지금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과 30년 넘는 시간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상수관이 노후화됐다. 한국이 한꺼번에 돕기는 어려워 보인다."

-향후 전반적인 북한 인프라 개발 전망은.

"도로와 철도가 뚫리면 물이 간다. 에너지가 가고, 그런 패턴으로 돌아갈 듯하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은 기술이 앞선 한국이 세워줘야 할 것이다."

/이범중 기자



/이범중 기자





[산업] 부산국제모터쇼 미래車 혁신기술 모였다 05



Life

[유통] 국민간식 '맥스봉' 누적판매 10억개 넘



#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김구 선생의 독립 염원 느끼다

## 되살아나는 서울

### 10 종로구 '경교장'

제 모습 잃었던 마지막 임시정부청사 3년간 복원 마치고 5년 전 시민에 개방

백범 김구 선생의 혈의·속옷밀서 등 자주 통일 위해 애쓴 흔적 볼 수 있어

경교장 주위 병원 건물 들어서 100% 완벽한 외부 복원 힘들어

“탕, 탕, 탕, 탕”

1949년 6월 26일 낮 12시 40분, 백범 김구 선생의 사저 경교장 2층 집무실에서 네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이 주한미군방첩대(CIC) 요원 안두희에게 암살당했다. 그의 나이 향년 74세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가 정한 국호, 국기, 국체, 국가를 이어받았다. 경교장은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한국 이후 첫 국무위원회가 개최된 역사적인 장소다. 하지만 김구 선생 서거 후, 이곳은 외국 대사관과 병원 시설 등으로 사용되면서 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후 시민사회에서 경교장을 문화재로 지정·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2013년 약 3년여간의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마치고 경교장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 ◆70년 전에 멈춘 시계… 김구 선생의 숨결

지난달 27일 경교장을 찾아 민족 자주통일을 위해 애쓴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서울 종로구 평동 강북삼성병원의 응급실 옆에 위치한 경교장은 아치형 창문 5개가 인상적인 2층짜리 건물이다. 가장 먼저 입구 왼쪽에 있는 계단을 따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임시 정부 당시 보일러실, 식당, 방이 있었던 자리에는 경교장의 역사,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을 주제로 한 3개의 전시실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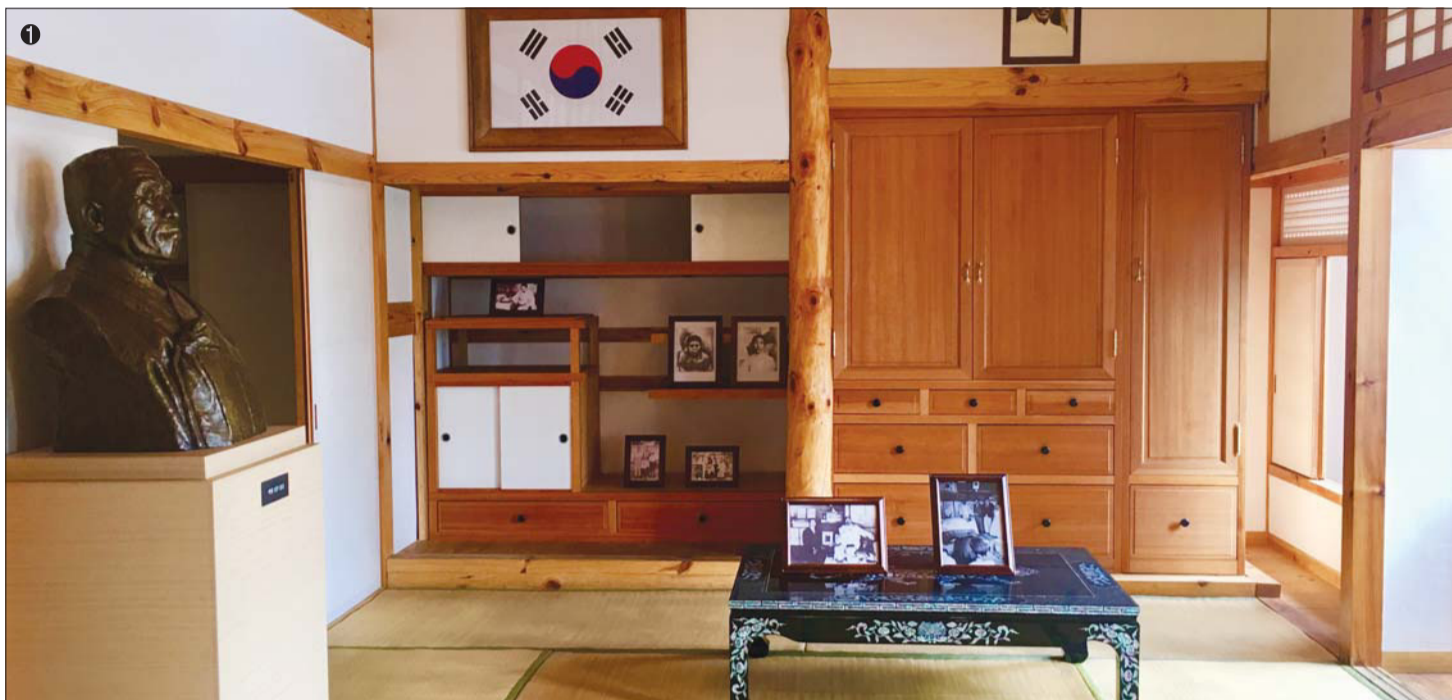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전시물은 백범 김구 선생의 혈의였다. 김구 선생이 서거 당시 입고 있었던 하얀색 저고리의 목덜미와 겨드랑이 부분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파주시 금촌동에서 온 김수민(13) 양은 “저 옷은 지금 봐도 마음이 아프고 서럽다”면서 “그당시 사람들은 김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더 슬펐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속옷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속옷 밀서라 불리는 전시물은 1948년 정부수립 직전 북한 내에 민족진영 비밀조직원들이 김구 선생에게 북한 정세를 보고하고, 남북 통일정부수립을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경교장을 찾은 정혜연(21) 씨는 “속옷 밀서에서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독립국을 위해 고군분투한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나라를 위한 이분들의 노력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 ◆소유권 병원에…100% 복원 어려워



- 1 백범 김구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 2층 집무실에서 안두희의 총탄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다.
- 2 지난 27일 경교장 지하 1층 전시실에서 한 시민이 백범 김구 선생의 혈의를 보고 있다.
- 3 1948년 정부수립 직전 민족진영 비밀조직원들이 김구 선생에게 북한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속옷에 밀서를 작성했다.
-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경교장은 소유권이 삼성병원에 있어 완벽한 복원이 어려워 보인다.

/사진=김현정 기자

경교장 1층에는 국무위원회가 개최된 응접실이 있다. 김구 선생은 이곳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접견했다. 응접실에서 복도로 나와 오른쪽으로 가면 귀빈식당이 나온다. 식당 안에는 양 끝에 1명, 가운데 7명씩 총 16명이 앉을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기다란 식탁이 놓여 있다. 임시정부의 공식 만찬이 열렸던 식당은 김구 선생 서거 당시 빈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한층 더 위로 올라가면 김구 선생의 집무실과 침실, 서재 등을 볼 수 있다. 일식 다다미방으로 꾸며진 임시정부 요인 숙소는 그 당시 사진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집무실 책상 뒤 창문에는 서거 당시 총탄 자국도 재현돼 있다.

송현성(43) 씨는 “경교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딸애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밖에 경교장이라고 쓰여 있어 들어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김구 선생은 알고 있지만, 경교장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홍보

가 잘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경교장에는 하루에 200명 정도가 방문한다”며 “지하철 광고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했다.

한편, 아직 복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민도 있었다. 자녀와 함께 경교장을 찾은 김영민(41) 씨는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아이에게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김구 선생이 남북 연석회의 때 복행을 위해 사용한 지하 1층 보일러실 복측 문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온 박모(55) 씨는 “외부는 복원이 전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건물 뒤쪽은 병원 응급실과 붙어있고, 정원이 있었다던 앞마당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교장은 건축 당시 전체 면적이 5267.44㎡에 달하는 넓은 공간이었지만, 현재 규모



는 대지 396㎡에 건물 총면적 945㎡ 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경교장소유권이 삼성병원 쪽에 있고, 이미 병원 건물이 상당 부분 들어서 있어 100% 완벽한 복원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